

미래에셋대우 VIP고객의 평안한 노후를 위한 *Life Style Curation Magazine*



OBLIGE CLUB MAGAZINE

2019. AUTUMN

VOL. 55



‘오블리제 클럽’은
고객의 성공적인 자산 운용과
평안한 노후를 위한
미래에셋의 VIP 서비스 브랜드입니다.

2019 AUTUMN THEME

삶을 채우는 여가

고객님, 안녕하세요.

오블리제 클럽 매거진 가을호의 주제는 ‘삶을 채우는 여가’입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름의 작열하는 태양을 이겨낸 곡식이
용골지게 여무는 계절이며, 초록 풍경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황홀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여가^{餘暇}’는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과 자신의 취향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은퇴 후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가을호에서는 진지한 여가, 삶의 품격을 높이는 여가의 다양한 기술에 대해
알아봅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통해 여가를 디자인해보고, 자연의 품에서
보내는 평온한 여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소설 〈메밀꽃 필 무렵〉으로 잘 알려진 이효석 작가는 수필 〈낙엽을 태우면서〉에서
“낙엽 타는 냄새같이 좋은 것이 있을까. 갓 볶아낸 커피 냄새가 난다. 잘 익은
개암 냄새가 난다. 갈퀴를 손에 들고는 어느 때까지든 연기 속에 우뚝 서서, 타서
흩어지는 낙엽의 산더미를 바라보며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 있노라면 별안간
맹렬한 생활의 의욕을 느끼게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맹렬한 생활의 의욕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인가요?

*
2019년 오블리제 클럽 매거진은
‘고객의 평안한 노후를 위한 Life Style Curation Magazine’으로 리뉴얼 되었습니다.
단순한 투자 정보 매거진에서 벗어나 고객님의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심도있고 풍성한 이야기를 엮어 인사드립니다.

06 — 19 THINK



06
2019 트렌드의 핵심
인생을 위한 여가

10
같이 하면 더 즐거운 시간
이근후 박사가 이야기 하는
부부가 함께하는 여가의 가치

16
인생에 미루어둘 행복은 없다
여가 활동으로 여는 새로운 삶

22 — 43 ENJOY



22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여가를 디자인하다
여가를 제안하는 기업과 서비스

28
배우고 즐기며 삶을 업그레이드하다
일상의 품격을 높이는 여가

38
자연의 품에서 보내는 평온한 여가
세이지우드 홍천



COVER STORY 세이지우드 홍천

복잡한 도시를 떠나 잠시 쉬고 싶을 때,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는 역시 자연의 품이 떠오릅니다. ‘푸른 하늘, 울창한 숲, 여유롭고 건강한 삶이 있는 곳, 지혜로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뜻의 세이지우드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자연 그대로의 품격을 선사합니다. 가공하지 않은 자연 느낌의 흙벽과 거친 돌의 조화로 숲속 짙은 향을 느끼며 절대적인 침을 경험할 수 있는 그곳에서 소중한 가족과 함께 편안한 여유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46 — 67 GO ON



46
살롱 문화, 취미의 공유를 넘어서는
시너지
문화와 예술을 교류하는 여가 시간

52
‘한국식 살롱’을 이끄는 공간
취향이 맞는 이들과 함께 보내는 여가 시간

56
무엇을 할까 고민된다면
‘취향 구독’

62
입고 싶은 것을 멋지게 입기
시니어의 패션 자신감, 그레이 크러시

68 — 85 TREND & INNOVATION



68
트렌드 중심엔 언제나 Z세대
디지털 세상의 신인류 Z세대 탐구

74
여유로운 삶을 위한 리츠^{REITs}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 리츠 알아보기

80
자유 작품 공모전 안내
미래에셋대우와의 소중한 추억을 보내주세요

83
오블리제 클럽 매거진 가을호 만족도 조사

84
노블리스 오블리제

85
뮤지컬 <사랑했어요> 공연 관람 문자 이벤트



별책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자산 배분
모델 포트폴리오

〈오블리제 클럽〉은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www.miraesassetdaewoo.com > 회사 소개 > ABOUT US > 홍보자료 > 오블리제 클럽 매거진

삶을 채우는 여가

THINK

지금 트렌드의 중심이 된 여가가
삶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함께 생각해봅니다.

ENJOY

우리의 여가 시간에 즐거움을 더하는
기업, 활동, 장소를 소개합니다.

GO ON

지금 바로 다른 이들과 여가를 함께 하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실행해볼 수 있는 방법을 전합니다.

텅 빈 삶이 아닌

인생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여가가
삶을 풍요롭게 하는 행복이 됩니다.



그림: 이철민

“여가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세상의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은
한가할 때 이뤄졌다.”

_ 조지 버나드 쇼(아일랜드 작가)

06 2019 트렌드의 핵심
인생을 위한 여가

10 같이 하면 더 즐거운 시간
이근후 박사가 이야기하는
부부가 함께 하는 여가의 가치

16 인생에 미루어둘 행복은 없다
여가 활동으로 여는 새로운 삶

2019 트렌드의 핵심

인생을 위한 여가

은퇴 후 85세까지 생존할 경우 순수 여가 시간이 무려 11만 시간에 이른다고 한다.

25세에 취직해 60세에 은퇴할 경우 일하는 데 쓴 시간이 8만 시간이라고 하니,

그보다 더 긴 시간이 은퇴 후에 기다리고 있다. 그간 열심히 살아온 나를 위해

온전한 휴식도 좋지만, 여가는 단순히 쉼을 의미하지만은 않는다.

여가를 의미 있게 활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글. 이준관 에디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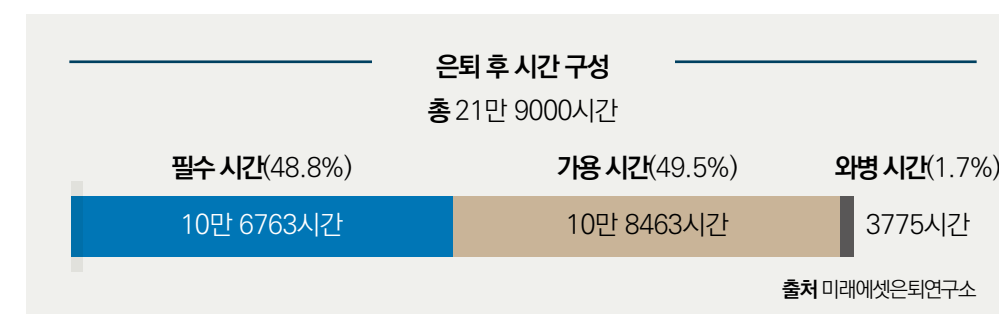
나나랜드,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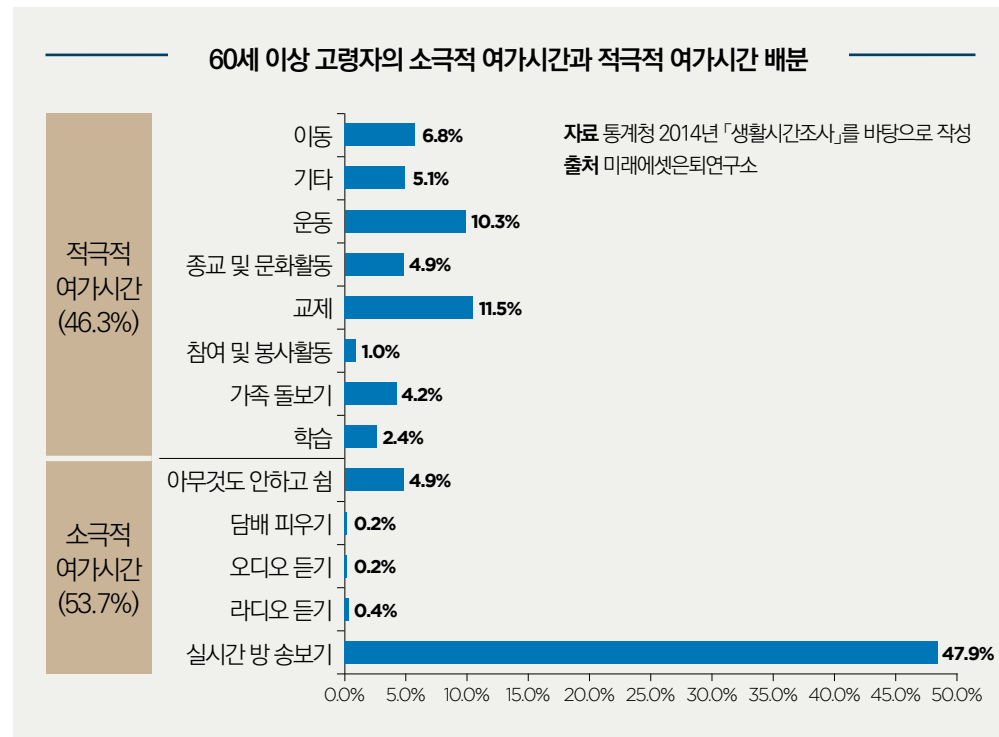
여가 활동은 삶의 행복에서 과연 어떤 의미일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설문 중 일과 여가의 비중에 관한 질문에서 "여가에 더 집중한다"고 밝힌 25.9%의 응답자가 10점 만점에 7.1점의 행복 수준을 보였다. 일과 여가 생활의 균형을 이룬다는 37.3%의 응답자는 6.9점, 일에 더 집중한다는 응답자는 6.6점이었다. 여가에 집중할수록 더 행복해 진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과 자신의 취향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에게 여가는 더욱 각별한 의미가 있다. 최근 한 방송에서는 만화 캐릭터에 심취한 남자 배우, 네일 아트 자격증을 따고 틈만 나면 가족의 손톱을 물들이는 남자 등 독특한 여가 활동을 조명한 <나나랜드>라는 프로그램이 전파를 탔다. '나나랜드'는 올해 유행을 예측한 책 <트렌드 코리아 2019>에 등장한 단어로, '나의 기준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을 뜻한다. 그들은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진정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추구하며 살아간다. <나나랜드> 속 출연진처럼,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스스로의 취향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게 요즘 방식이다. 나이와 성별 등을 기준으로 취향을 한정하지도 않는다

은퇴 후 11만 시간, 1막보다 긴 인생 2막

은퇴 후 11만 시간에는 여가의 의미가 더욱 중요해진다. 은퇴는 흔히 인생 2막이라고 말한다. 실제 계산해보면 25세에 취직해 60세에 은퇴할 경우 직장 생활은 35년. 하루 8시간, 월 2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8만 시간을 일하는 데 쓴다. 퇴직 후에는? 은퇴 후 85세까지 생존할 경우 인생에 남은 시간은 22만 시간^{25년×365일×24시간}에 이른다. 그리고 미래에셋은퇴연구소의 '은퇴 후 시간 구성'에 따르면 수면, 식사 등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필수 시간, 질병으로 누워 지내는 와병 시간 등을 제외할 경우 순수 여가 시간은 약 11만 시간이 된다. 일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은퇴 후에 주어지는 것이다. 은퇴는 물러남을 뜻함과 동시에 그야말로 '다시 시작'이다. 따라서 새로운 삶을 위한 '리셋'이 필요하다.





그런데 은퇴 후의 여가 생활을 제대로 준비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2015년에 작성한 ‘60세 이상 고령자의 소극적 여가시간과 적극적 여가시간 배분’ 표에 따르면 60세 이상은 대부분의 시간을 소극적 여가 활동에 쓰고 있다. 소극적 여가시간 중에서도 ‘TV 시청(실시간 방송 보기)’이 1위고, ‘아무것도 안하고 쉬’이 2위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가에 대한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은 이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는다. 사회 생활의 인간관계는 은퇴 후 대부분 위축되고 단절된다. 하던 일을 빼앗기거나 손에서 놓은 이들은 자신의 효용성이 사라졌다는 불안감에 자존감마저 떨어진다. 그로 인해 은퇴 후 우울증을 앓는 사례도 많다. 여가 활동은 이러한 은퇴자가 건강하게 인생 2막을 여는 조력자가 된다.

여가 활동은 은퇴자의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조력자

여가 활동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회복해준다. 과거의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대신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보완하고 확대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지역 공동체 활동이나 동호회, 사교 모임 등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다. 여가 활동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등산과 산책, 스포츠 활동이 신체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이러한 신체 활동은 우울감과 무기력감에서도 벗어나게 해준다.

또한 의미있는 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 은퇴자는 여전히 사회의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존재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랫동안 쌓아온 직무 능력을 활용해 제2의 직업을 찾거나, 사회적 활동을 통해 ‘인생 노하우’를 펼친다면 삶의 지혜를 다음 세대와 나누는 것은 물론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다.

은퇴 후 여가를 자기 계발과 성취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배우고 싶던 기술이나 공부, 취미 활동을 하며 새로운 즐거움을 찾으면 인생의 보람도 커진다.

노년의 자기 계발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인물이 있다. 호서대 설립자이자 명예총장인 고 강석규 박사로, 그는 95세에 어학 공부를 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강 박사는 95세에 남긴 ‘어느 95세 어른의 수기’에서 “65세 후의 인생은 덤이라고 생각해 허송세월했다”며, “105세가 되어 또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어학 공부를 결심했다고 고백했다. 강 박사는 103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어학공부를 친구로 여겼다. 이처럼 자기 계발은 마음먹기에 따라 상한선이 없다. 호기심을 잃지 않고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조금씩 나아지는 자신의 능력을 보는 것은 언제까지라도 누릴 수 있는 기쁨이다.

진지한 여가, 삶의 격을 높이는 여가의 기술

강석규 박사처럼 여가를 활용해 자기 계발을 하고 성취감을 얻는다면 삶의 질은 물론 만족도도 높아진다. 이러한 사례는 여가학 연구 이론 중 하나인 ‘진지한 여가(Serious Leisure)’로 설명된다. 세계적 여가학자인 캐나다 캘거리 대학교 로버트 스테빈스 교수는 여가를 ‘일상적 여가’, ‘프로젝트형 여가’, ‘진지한 여가’로 구분한다. 일상적 여가는 TV 보기와 산책, 낮잠 등 기술이나 지식이 없이도 단기간에 휴식과 재충전, 즐거움 등의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여가 활동이다. 프로젝트형 여가는 결혼식, 생일 파티 등이다.

반면 진지한 여가는 특수한 기술과 지식, 경험이 필요한 활동이다. 비록 직업은 아니지만 장기간의 노력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으며, 성취감·자기만족·자아실현이 보상으로 따라온다. 또한 여가 활동 참여자들과 공동체 정신을 형성하기도 한다. 여가 활동 중에서도 기술이 필요한 스쿠버다이빙, 악기 연주, 외국어 공부, 수공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일찍부터 진지한 여가 활동을 즐기고 전문 기술과 경력을 쌓는다면 제2의 직업으로 발전 가능성도 높고, 은퇴 후에도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평생의 취미로 남는다.

이처럼 여가를 즐기는 방법은 다양하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결국은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것. 95세에 어학 공부를 시작한 고 강석규 박사처럼, 행복을 잡는 데 지금의 여가 시간을 투자해보자. 상상보다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올 것이다. ■



같이 하면 더 즐거운 시간

이근후 박사가 이야기하는 부부가 함께하는 여가의 가치

나는 60회 생일을 맞이하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다. 정년 퇴임을 하면 또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까? 누구에게나 생각해볼 직한 명제이다. 그 당시 나는 정년 퇴임을 하면 부부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렇게 같이 일하고 같이 여가를 보낸다. 무엇이든 함께 하면 더 즐겁다.

글. 이근후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우리 부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함께 교수로 정년 퇴임을 했다. 돌이켜보면 내가 결혼하기 이전에 마누라와 교제하면서 이런 제안을 했다. 밖에 나가서 직업을 갖지 않는다는 조건! 이런 조건은 우리 어머니가 내가 어릴 때부터 사회 활동을 하신다면서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기에 내가 장가를 간다면 밖에 나가 직업 활동을 하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약속받은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나 개인적인 여러 문제 때문에 마누라가 직업을 갖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여 있었다. 내가 군 복무를 마치고 연세대학교 전임강사로 처음 부임하면서 마누라와 의논을 했다. 우리 결혼 전에 약속한 대로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을 수 있는가. 마누라의 대답은 결혼 후 10년간 직장에 나가 일했기 때문에 지금 그만두기는 어렵단다. 그래서 다시 약속한 것이 서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서로 돕기로 약속했다. 이런 경험 때문에 내가 회갑 때 둘이 한 공간에서 일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의논하다가 '사단법인 가족 아카데미아'를 발족했다.

가족 아카데미아의 목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회 봉사이다. 나는 의과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의사는 평생 동안 환자에게 봉사하는 데 익숙하다. 그래서 봉사 파트는 내가 맡았다. 사회학 교수로 일한 마누라는 교육 파트를 맡았다. 그 당시 부모 교육, 노인을 준비하는 교육, 상담원 심화 교육, 봉사 교육 등등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하는 파트를 맡았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공간이라 정년 퇴임 후 매일 함께 출근하고 퇴근한다.

여가 시간도 함께 보내기

나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그림 그리기, 붓글씨 쓰기를 취미 삼아 열심히 했다. 어느 정도 아마추어 수준은 된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면서 등산이란 취미가 하나 더 생겼다. 등산에 몰두하다 보니 그림 그리거나 붓글씨는 대학 시절을 끝으로 마감했다. 등산은 내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경북학생산악연맹이라는 것을 친구들과 만들어 산행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 한국산악회의 쟁쟁한 산악인들이 6·25전쟁으로 대구에 피란을 왔다가 미처 귀영하지 못한 선배 산악인을 모시고 산행을 배웠다. 그러니 주말마다 1박 2일로 팔공산에 올랐다. 팔공산에 올라 선배님에게서 여러 가지 등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듣고 병풍바위에서는 자일을 끌고 암벽 타기도 배웠다. 이때 마누라도 간혹 함께 등반에 참여했다. 이 등반에 관한 취미는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전문의가 되어 교수 생활을 할 때까지, 그리고 지금껏 이어져오고 있다.

결혼해서 여가 선용은 등산으로 메웠다. 틈만 나면 아내와 함께 등산을 했다.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도 자녀와 함께 등반을 했다. 큰아들이 첫돌을 맞았을 때 도봉산을 기념 등반했다. 아들이 걸을 수가 없으니 목말을 태워서 도봉산 정상에 왕복했는데 내려

이근후 박사(이화여대 의대 신경정신과 명예교수), 이동원 박사(이화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은퇴 후 가족 아카데미아를 설립해 부부가 함께 봉사하고 여가 시간도 같이 보낸다.

오다가 비를 만났다. 그래서 내가 아들을 품에 안고 군용 판초를 뒤집어쓰고 내려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깜깜한 판초 안에서 내 품에 안긴 아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궁금하다. 기억도 못 할 테지만 말이다. 이렇게 시작한 가족 등반은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어졌다. 지금은 모두 장성해서 함께 등반할 기회가 없지만, 소망 같아서는 손자손녀들과 함께 등반하고 싶은데 그들 또한 바쁘기가 나보다 더하다. 그러니 손자손녀들과는 함께 하지 못했다.

나는 젊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주말마다 등반을 할 때니까 등반에 아주 심취해 있었다. 그런데 나도 나이가 들면 이렇게 매주 등반할 수 없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면 어떡하나? 그래서 생각해낸 내 상상은 이렇다. 청년 때는 정상을 바라보고 오르고 중년 이후에는 산허리를 도는 트레킹을 하다가 노년이 되면 둘레길·올레길을 걷자. 그런데 그나마 걸을 수 없는 처지가 되면 어떡하나? 그때는 흔들의자에 앉아서 산악 비디오를 틀어놓고 눈으로 산을 오르는 것이다. 걷는 것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젊을 때 익숙하게 오르던 산을 그림으로 보는 것은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흔들의자에도 앉아 있을 처지가 못 된다면 어떡할까? 침대에 누워서 천장에 빔을 쏘면 그 또한 볼 수 있지 않을까 상상했는데, 말이 씨앗이 되는 것일까? 나이 들고 보니 내가 젊을 때 상상한 그 순서대로 가는 것 같다. 나는 산이 좋다. 부부가 함께 하는 취미라면 나는 단연 이 등산을 말하고 싶다. 학교 다닐 때도 물론이지만 부부가 되어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틈만 나면 함께 등산했다. 그러니 부부가 함께 한 취미로는 손색이 없다.

부부가 함께 하는 여가의 즐거움

부부가 같은 취미를 한 가지 갖고 여가를 보내는 것은 대단히 큰 장점이다. 취미는 서로 즐거운 것을 하는 것이기에 부부가 함께 즐긴다면 그 즐거움은 배가할 것이다. 그러니 이혼하는 부부를 보면 성격이 맞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우는 부부가 많은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부부가 함께 하는 취미라도 하나 있었다면 성격 운운하면서 이혼할 사람이 줄어들지 않을까 한다. 사실 부부라고 하는 것은 각자 다른 가정과 문화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생각과 행동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중 서로 맞는 어떤 점을 공유하면서 결혼을 한다. 그 가운데 취미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여간한 행운이 아니다. 나는 부부가 되면서 천막을 지고 산으로 신혼여행을 갔다. 그럴 정도였으니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여가가 생기면 산행 이외에는 달리 무엇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

내가 생각하는 부부가 함께 하는 등산의 이점을 몇 가지 꼽자면 첫째는 부부가 함께 행동하는 것이다. 산행을 서로 도울 수가 있는데, 밀고 당겨주고 부부가 합심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등반을 통해 평소에 알지 못한 서로의 면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세 번째로는 산이 우리 부부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이런 생각은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겠지만, 부부가 함께 해야 할 무엇인가를 공통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신기한 힘이 있다. 네 번째로는 몸을 움직인다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운동으로 지속적인 운동이 된다. 어떤 취미든 우리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나는 그 활

이근후-이동원 박사 부부는 89년부터 매년 함께 의료봉사에 문화탐방 등을 함께하는 네팔캠프를 열었다. 사진은 2005년에 네팔캠프가 열렸던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의 전경.



력소를 산에서 찾았을 뿐이다.

내가 해보지 못한 취미이긴 하지만 평생 해보고 싶은 취미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부부가 함께 노래하는 것이다. 하려고 들면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 문화교실도 있고 노래방 등 배우고 노래할 공간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부는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다. 이유는 둘 다 음치이다. 노래가 아니더라도 산행이 있으니 노래가 부러울 뿐 아주 절박한 것은 아니기에 그냥 흘렸다. 다른 하나는 사교춤이다.

부부가 함께 춤을 춘다는 것은 참 부럽고 좋은 취미일 것 같다. 대학교 동기회가 열리면 한 커플이 나와서 춤을 추는 시범을 보인다. 동기회 날이 되면 자진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서로 나와서 춤을 춰보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면 부부가 나와서 여러 가지 춤을 우리에게 선사해주는데, 보기가 너무 아름다웠다. 그리고 부러웠다. 내 제자 부부도 서로 함께 하는 취미를 만들어보자고 의논한 결과 사교춤을 배우자고 했단다. 지금은 배우는 수준이 아니라 전문가 수준에 이르렀다.

그 제자 부부는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 “주말이면 이제 함께 춤을 추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다”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갈등도 생기고 걱정거리도 생기지만, 함께 춤을 추고 나면 다 사라진다고 한다. 우리 정신과 치료에서 춤 치료라는 장르가 있다. 춤을 통해서 춤을 치료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다. 그러니 이 제자 부부는 스스로 자신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선택했을지도 모르겠다. 참 부럽다. 비록 나는 해보지 못했지만 만일 독자들이 나에게 어떤 취미가 좋겠는가 하고 묻는다면 흔쾌히 이 노래와 춤을 권하고 싶다(나는 해보지 않았지만).



취미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에서 취미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많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일과 취미를 명백히 구분해야 할 기준이 있다. 일은 긴장해서 몰두해야 하는 것이고, 취미라는 것은 긴장하면서 즐기는 것은 아니다. 목적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이완이다. 이것만 잘 지킨다면 취미는 우리에게 비타민 같은 활력소가 될 것이다. 개인적인 취미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하는 취미라면 부부 생활을 더 즐겁고 돈독히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부부가 함께 하는 취미라고는 하지만 하다가 보면 다투는 일이 많다고들 한다. 취미는 아니지만 운전 같은 것을 하면 부부가 꼭 싸운다. 내 지인 중에도 잘 싸우는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마누라 잔소리 듣기도 힘든데 요즘은 내비게이션도 잔소리를 해요.” 부부가 너무 밀접하게 감정을 공유하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다. 아무리 부부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전적으로 내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다. 나머지 부분을 자기감정대로 요구하다 보면 그것이 강요가 되고 싸움의 단초가 된다. 하지만 더 많은 순기능이 있다.

부부가 함께 하는 취미를 통해 상대방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그 이해의 폭이 넓다는 것은 부부 생활을 증진시키는 큰 이유가 된다. 지금 부부간에 같은 취미가 없다고 하는 독자가 있다면 없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한번 탐색을 해보면 작을지언정 분명 있을 것이다. 나이 들어가면서 이런 작지만 소소한 취미로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다면 여생이 행복할 것이다. ■



● 이근후 정신과 전문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이자 가족 아카데미 대표. 저서로 <백 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여차피 살 거라면)>,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멋지게 나이 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인생의 기술 53)> 등이 있다.

인생에 미루어둘 행복은 없다

여가 활동으로 여는 새로운 삶

슈필라움^{Spielraum}이란 단어가 있다.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거나
딩굴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그마한 ‘나만의 공간’을 뜻한다.
마음의 슈필라움을 가꾸기 위해 나에게 좋은 취미를 권해달라는 지인이 많다.
시간을 들여 재미있게 노는 방법을 터득한 이 분야의 전문가로 대접해주니,
진지하게 하나를 추천해 준다. 그러면 대부분 돈부터 좀 모아놓고 언제
여유가 생기면 하겠노라고 말한다.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은 미루어선 안 된다.

글/사진. 남우선 다큐멘터리 PD



사람의 인생은 생각보다 짧다. 유한한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간다. 그러니 우물쭈물하지 말고 냉큼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갈 것이며, 만나고 싶은 이를 만나야 한다.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 이 순간만큼 중요한 것이 없으니, 인생에 미루어둘 행복이 어디 있으랴. 여가 활동을 그저 쉬는 것으로 여기거나, 활동 없는 휴식만 택하는 이들에게 취미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권한다. 여가 시간은 일에 치여서 실행하지 못한, 은퇴 후로 미뤄둔 그 ‘하고 싶은 일’을 실행할 시간이다.

적극적인 여가 활동에는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 나는 30년 이상을 쏟아부은 나의 클래식 감상과 오디오 취미, 세계 99개국을 다닌 여행 경력에 사진작가이며 경력 15년의 스쿠버다이빙과 커피 바리스타 경력을 예로 들곤 한다. 미루기 싫었던 취미를 오랜 세월을 두고 공부하며 실행해왔는데,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고 세상 어떤 일보다 꾸준히 해오며 그것이 주는 행복을 즐기고 있다.

마지막에 남는 후회는 결국 ‘시도하지 않은 것’

사회생활은 밥그릇 싸움이 심하다. 자리가 온전하려면 있는 것 없는 것 탈탈 털어야 한다. 지나친 경쟁에 우리의 몸과 마음은 늘 힘들고 피곤하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운 이유는 모두들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불 켜고 열심히 일만 하는 어른들 때문이다. 뭐가 그리 중요한지 밤새우는 일도 허다하다. 그들이 정말 행복한지, 즐겁기는 한 건지 나는 도통 모르겠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영국인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이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짚어준다. 그는 “인간은 하루 4시간만 밥벌이를 위한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엔 다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즐거운 무언가를 하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루 8시간은 커녕 야근과 주말 근무까지 전쟁처럼 치러내야 살 수 있는 이 나라에서 러셀의 말은 씨알도 먹히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새겨볼 필요가 있다.

러셀의 말에 따르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윤리’는 족쇄를 찬 노예의 것이지, 문명화된 사회를 사는 자유인의 것이 아니다. 진정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 더 중요한 것은 ‘여가’이며 그 여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자유인이나 아니냐가 판가름 난다는 것이다. 먹고살기 위해, 자식과 아이를 키우기 위해 노예로 살아야 하는 나와 이 땅의 사람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참다운 자유’다.

여러 신문 기사에 인용되며 크게 회자된 설문 조사 결과가 있다. 2014년 당시 KDB 대우증권 미래설계연구소가 50세 이상, 잔고 1000만원 이상인 고객 9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인데, 결과가 의미심장하다.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뭐냐고 물은 질문에 ‘평생 취미를 못 가진 것’(18%)이 1위로 꼽혔다. ‘더 많은 도전을 못한 것’(15%)과 ‘여행 부족’(14%)이 그 뒤를 이었다.

1 김나은 씨는 취미로 시작한 서핑에 푹 빠져 다양한 서핑 대회를 섭렵하고 현재 '서프베이' 대표로 서핑의 즐거움을 전파하고 있다.

그러므로 삶의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나 이거 확 시작해버렸어”라고 친구들에게 선언하라. 저 높은 계단은 첫발을 디디지 않고는 올라갈 수 없고, 올라가보지 않고서는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좋은 취미는 인생의 구세주

요즘 많은 취미사와 자기 계발서들은 저렴하고 쉬우면서 가격 대비 이익이 많은 가벼운 취미를 소개하느라 경쟁이다. 반면 시간과 품이 많이 들고, 자신의 고통과 고뇌를 연료로 하는 깊이 있는 것을 소개하길 두려워한다.

나는 전자의 경우 책들의 저자는 취미로 고통받고, 그 대가로 영혼이 구제되거나 인생이 살 만한 것이 되었다는 따위의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본다. 왜냐하면 내가 쓴 〈남자의 취미〉, 〈여자의 취미〉에서 누누이 강조하는바 취미는 ‘미칠수록’ 좋은 것이니, 시간 남을 때 살살 하면 되는 만만하고 돈도 안 드는 취미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내가 책을 위해 취재하고 인터뷰한 18명의 남녀들은 모두 그러한 자기 계발서쯤은 우습게 여길 만큼 맹렬하게 몰입한 인물들이다.

그들을 취재하며 내린 결론은 취미는 좁고 편협할수록 좋다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애태우고, 방황하며, 애달파서 사랑해야 한다. 그것도 오디오 마니아이자 시인인 김갑수가 말하는 것처럼 ‘악마적 열광’까지 동반하는 것이면 더 좋다. 평생 모은 돈으로 지하 35평에 그만의 오디오 룸으로 들어가 일할 때 말고는 나오지 않는 김갑수나, 40이 넘어 아이 키우고 직장 일에 아웅다웅하느라 얼굴이 악마처럼 변해가던 어느 날 ‘이건 아니라’며 회사도 정리하고 아이는 군대 보내버리고 홀연히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난 주부 오현숙의 용기는 칭송해마지않을 ‘열광에 도달한’ 사람들이다.

서핑을 배운 지 1년도 안 된 서퍼 김나은이 바닷가에서 찢어진 발가락을 순간접착제로 붙이고 달려오는 파도를 잡으려 뛰어나간 사실은 진정 취미에 열광하지 않으면

2



2 오디오 마니아이자 시인인 김갑수 씨는 지하 35평에 평생 모은 돈으로 만든 그만의 오디오 룸으로 들어가 일할 때 말고는 나오지 않는다.
3 주부 오현숙 씨는 일상에 지쳐 악마처럼 변한 자신의 얼굴을 보고, 홀연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나 새로운 세상을 만났다.

3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건전한 취미라니? 왜 어째서 취미가 건전해야만 하는 것인지? 모든 취미의 궁극적인 도달점은 악마적 열광인데, 건전해야 한다는 건 그야말로 망상이다. 미칠 듯 열광하고 애태워야 한다”라고 김갑수는 우리에게 미칠 것을 주문한다.

누구나 마음을 다 바쳐 하고 싶은 일이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가슴속의 욕망은 그것을 하기 전까지 가벼워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슴의 체온이 식어버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이미 늦다. 욕망이 없는 가슴은 더 문제다. 어떤 의미에서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다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이다.

좋은 취미를 전사하고 누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품 나게 산다는 것은 그러므로 일생을 바칠 편협한 취미를 빨리 고르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좋은 취미란 실로 영혼의 구세주요, 구원으로 가는 계단이다.

전설적인 서퍼 제이 모리아티의 실화를 그린 영화 중 한 편에 타히티에서 사고로 죽기 전 생전의 인터뷰 영상이 나온다. 그가 화면을 찍을 때 죽음을 예견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말은 마치 그것을 예견한 듯 살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울림을 준다.

“You just got to appreciate everything. I think that'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life.. is just really appreciating it, because you know, we only get to do this once, and it's not for a long time, so enjoy it!”

“당신은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냥 감사하세요. 왜냐고요? 우리는 이것을 단 한번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결코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아요. 그러니 부디 즐기세요!”

진정 현재의 삶이 파분하고 뭔가 헛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 자신만의 버킷리스트에서 하나만 골라내어 지금 바로 실행해보시라. 돈과 시간을 먼저 쏟아부은 다음 차차 메워나가시라. 이것저것 따지다가는 남들처럼 죽을 때 후회할 일만 남을 것이다. 이것저것 따지는 논리는 비논리 너머로 보내놓자. 그리고 당신의 삶이 바뀌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자. 지금 느끼는 이 기쁨, 지금 보는 이 풍경, 지금 만나는 모든 것은 일생에 한 번뿐이니 그 순간을 아끼고 감사하자. ■

● 남우선 여행가이자 오디오 평론가인 MBC PD. 삶을 바라보는 시각의 폭을 넓혀주는 다큐멘터리를 주로 제작해왔다. 저서로 〈여자의 취미〉, 〈남자의 취미〉, 〈나쁜 음악 보고서〉 등이 있다.

연금 전문 컨설팅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연금자산관리센터 (1588-5577)

연금 ETF/ETN 매매 시스템

홈페이지나 자산관리 앱에서
편리하게 매매

글로벌자산배분 퇴직연금 랩어카운트

전문가가 고객 상황에 맞게
퇴직자산 운용

로보포트 개인연금 자문형 서비스

포트폴리오 추천에서 매매까지
온라인으로 한번에

비대면 연금계좌 개설 서비스

365일 24시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개설

필요할 때 곁에 있는 서비스! 더 좋은 연금을 만듭니다
고객님의 연금을 좋게 만들 방법,
미래에셋대우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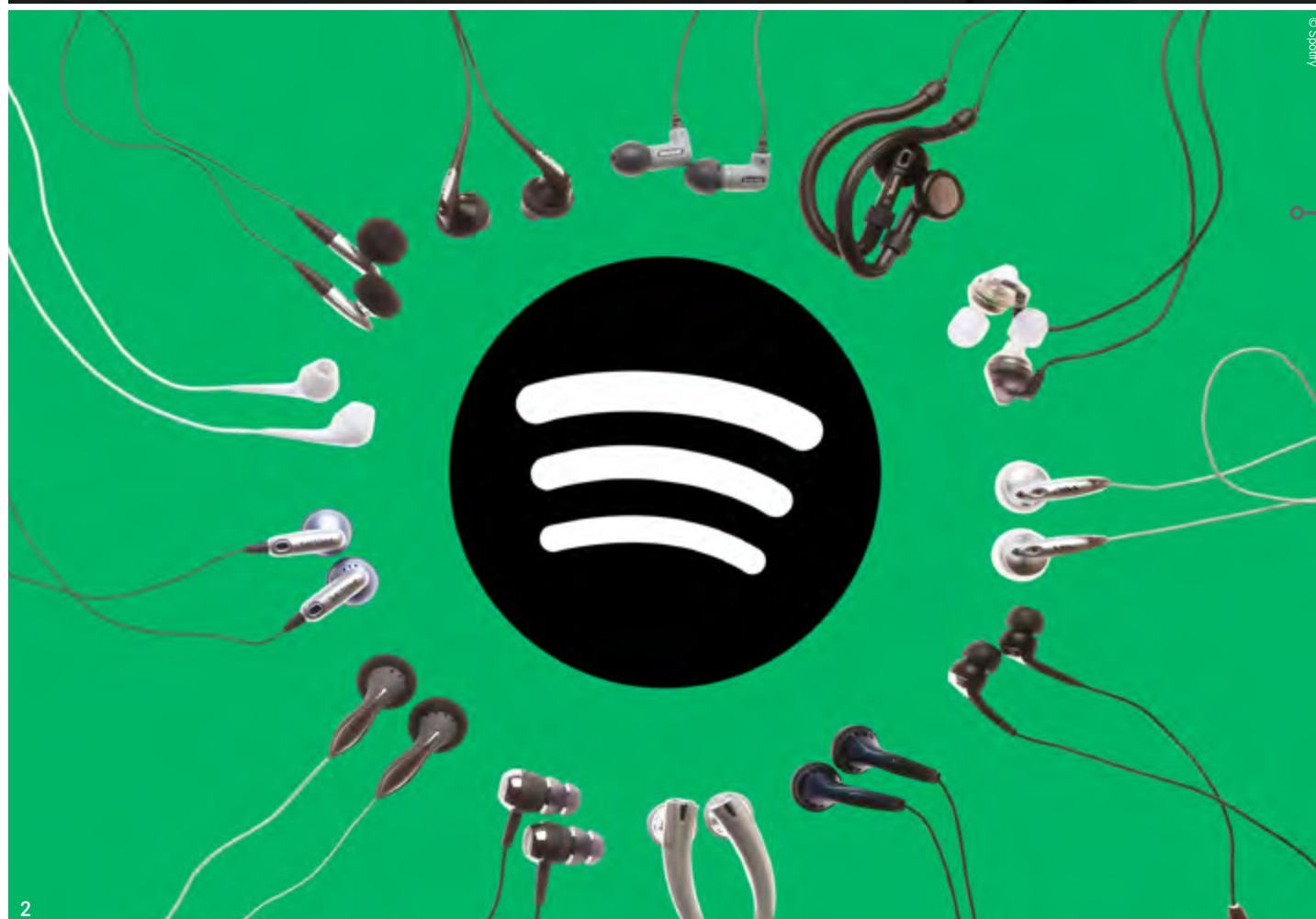
[연금자산관리센터 1588-5577] ■당사는 이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 및 서비스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랩어카운트 계약 전에 투자대상, 운용내용, 투자위험, 수수료 등에 관한 약관, 계약권유문서 등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랩어카운트 수수료 연 0.05% (단, 집합투자상품의 보수, 수수료, 비용 및 투자 일임수수료 별도 부담) ■집합투자증권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투자 파트너 -
MIRAE ASSET
미래에셋대우

“일하는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결정된다.
또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누구인지 결정된다.”

_ 리처드 S. 테들로(경영학자, 저술가)

- 22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여가를 디자인하다
여가를 제안하는 기업과 서비스
- 28 배우고 즐기며 삶을 업그레이드하다
일상의 품격을 높이는 여가
- 38 자연의 품에서 보내는 평온한 여가
세이지우드 흥천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다. 더 다양해진 선택지에서 고객이 무엇을 선택할지 공감하는 새로운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늘고 있다. 나조차도 모르는 내 마음, 건강 상태까지 기업이 찰떡같이 알아채고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다.

글. 윤정원 이노핏파트너스 CEO,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특임교수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여가를 디자인하다

여가를 제안하는 기업과 서비스

취향에 맞는 여가 생활 추천하기

세상에 10만 가지 종류의 맛있는 초콜릿이 있다면, 그 가운데 내 취향에 맞는 초콜릿은 열 가지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모두 찾아 직접 맛보기에는 시간과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는 수백 가지 초콜릿 가운데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게 된다. 이럴 때 누가 “당신의 취향은 팡퐁이 든 초콜릿입니다”라고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선택 대상이 너무 많아서 판단이 흐려지는 것을 데이터 스모그(Data Smog)라고 부르며, 이는 고객 입장에서 선택이 어렵다는 통점(Pain Point)을 안겨준다. 해결책을 찾아 보면 어떤 것이 있을까? 쉬나 아이엔가(Shena Iyengar) 교수는 “고객은 선택지가 많을 때가 아니라 선택지가 적을 때 선택을 더 잘한다”고 조언한다. 그래서 기업들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고객에게 더 적은 선택지, 즉 고객별 맞춤 선택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내놓기 시작했다.

스웨덴 뮤직 스트리밍 플랫폼 서비스 ‘스포티파이(Spotify)’는 “무슨 음악을 듣고 싶습니까?”라고 묻는 대신 “이 음악 가운데 골라보세요”라는 선택안을 제시한다. 고객의 감상 패턴과 취향에 맞는 음악을 잘 추천하려면 세상에 어떤 음악이 있는지 알아야 하고, 각 이용자가 어떤 취향의 음악을 좋아하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스포티파이의 인공지능은 전 세계 음악을 모두 수집해 음악에 관한 모든 요소를 분석한다.

- 1 넷플릭스는 사용자의 취향을 분석해 영화를 추천해주어 단숨에 큰 성공을 거뒀다. 사진은 2018년 8월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 지역 신작 발표회에서 연설을 하는 넷플릭스 CEO 리드 헤이스팅스.
- 2 스포티파이는 광범위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 음악 추천 서비스를 제공해 세계 1위의 음원 스트리밍업체로 성장했다.

사람들이 어떤 음악을 많이 듣는지, 어떤 음악에 금세 싫증 내는지, 어떤 시간에 어떤 음악을 듣는지 재생 정보도 수집한다. 한 손에는 음악 빅데이터를, 다른 한 손에는 이용자 빅데이터를 들고 음악을 맞추어 추천한다. 스포티파이는 이런 음악 추천 서비스를 통해 단숨에 세계 1위의 음원 스트리밍업체로 성장했다. 2018년 말 기준 1억 9000만 명의 회원 중 유료 사용자가 8700만 명이라 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그리고 기업 전략의 합작품

영화 추천으로 세계 1인자는 '넷플릭스^{Netflix}'다. 넷플릭스도 “무슨 영화를 보고 싶습니까?”라고 묻는 대신 “이 영화 가운데 골라보세요”라고 선택안을 제시한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 190개국의 1억1700만 명에게 언제 어디서나 TV와 영화를 시청할 수 있는 스트리밍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영화 시청 패턴을 분석해 로그인 시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영화를 첫 화면에 보여주며, 신작뿐 아니라 숨은 명작도 함께 추천한다.

넷플릭스의 이용자 75%는 넷플릭스가 추천한 영화를 본다. 여기서 미래의 콘텐츠 서비스에 필요한 것은 좋은 콘텐츠뿐만 아니라 고객의 취향을 저격하는 능력을 알 수 있다.



넷플릭스 이용자 가운데 75%는 넷플릭스가 추천한 영화를 본다고 한다. 이 시네매치^{Cine Match} 서비스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머신러닝과 첨단 통계 기법을 기반으로 한다. A라는 영화를 좋아하는 고객과 B라는 영화를 좋아하는 고객과의 상관관계 분석, 시청 패턴 분석, 평점 분석을 통해 개인의 영화 취향을 철저하게 분석해 추천한다. 심지어 콘텐츠의 얼굴에 해당하는 포스터도 회원의 취향에 맞춰 화면에 나온다. 영화별로 하나의 대표 이미지를 사용하는 일반적 관례와 달리 넷플릭스는 하나의 영상을 회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자의 취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특정 시간대에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3분의 1을 사용한다는 넷플릭스가 세계 최대 인터넷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업체라는 것은 취향을 저격하는 기업이 돈을 가장 잘 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지그재그’ 앱은 여성 패션몰을 한 번에 보여주며 사용자들이 좋아하는 상품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비단 외국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도 빅데이터, 인공지능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많다. 그중 하나가 인공지능 기반의 국내 스타일테크^{Style Tech} 분야다. 스타일테크는 패션·뷰티·리빙과 같은 라이프스타일 분야에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가상환경^{VR} 등 첨단 IT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창출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 스타일테크를 육성하기 위한 생태계가 잘 조성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그재그’는 패션 검색 포털로, 동대문 의류업체나 의류 쇼핑몰을 등록해 빅데이터 AI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상품을 보여준다. 지그재그는 인공지능으로 소비자의 성향 패턴을 16개로 분석해 그 성향에 맞는 쇼핑몰과 상품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옵션을 정제하고 가장 알맞은 옵션을 제공하는 것, 첫 화면을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제공하는 것, 바로 취향을 저격하는 서비스라 할 것이다.

내 건강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관리하기

4차 산업혁명에서 새롭게 분석하게 된 것은 고객의 취향뿐만이 아니다. 고객의 건강을 지켜주는 빅데이터 역시 각광받고 있다. 건강 수명을 기대 수명만큼 높이려면 매일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4차 산업 기술은 신체 활동을 데이터로 관리해 더 적게 먹고 더 많이 움직이도록 도와준다.

세계에서 성공한 건강관리 앱 중 하나인 ‘눔 코치’는 목표 체중에 도달하도록 코칭해주는 앱이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섬세하게 알려주는 이 앱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으로 목표 체중을 설정하고 관리해준다. 일반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는 한 사람의 코치가 30명 이상을 코칭하기 어려운데 인공지능 덕분에 최대 270명까지 동시에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체 데이터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헬스케어 웨어러블^{Wearable}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그 대표 주자가 바로 ‘핏비트^{Fitbit}’와 ‘애플 워치^{Apple Watch}’다. 건강관리 웨어러블 시장을 만들어낸 핏비트는 10년 동안 전 세계 78개국에서 2500만 명에게 7000만 개가 판매되었다. 이를 모방해 저가 공세를 펴는 샤오미가 장악한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핏비트가 세계 1위다. 핏비트를 손목에 착용하면 칼로리 소모량, 걸음 수, 이동 거리, 수면 시간, 심박수 등을 측정하고 기록해준다. 핏비트가 전 세계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한 주요 이유는 친구들과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친한 친구들과 앱에서 그룹을 만들어 매일 서로의 걸음 수를 확인하고 누가 더 많이 걷는지 경쟁할 수 있다. 몸무게 감량, 걸음 수 달성 등의 데이터로 목표를 이루면 보상으로 배지를 주는데, 동기 부여가 됨은 물론이다.

핏비트의 경쟁 상대인 애플 워치는 시계, 문자, 전화, 음성인식 비서, 건강관리 기능을 모두 갖춘 스마트 시계다. 애플 워치도 핏비트와 마찬가지로 활동량을 트래킹한다. 헬스케어 스타트업 ‘카디오그램^{Cardiogram}’과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는 애플 워치 사용자 1만4000명을 대상으로 진단 연구를 수행했다. 심장박동수 등 수집된 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으로 진단한 결과 462명이 당뇨병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당뇨 진단의 정확도는 85%였고, 그 외 검사의 정확도는 비정상 심장박동 97%, 고혈압 82%, 수면 장애 90%였다. 애플 워치에서 수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진단의 범위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다.

애플 워치는 건강과 IT를 결합한 웨어러블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사진은 미국 새너제이 매카너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WWDC2019(세계개발자대회 2019)에서 애플 개발자 헤일리 앨런(Haley Allen)이 애플 워치를 통해 음성 메모를 녹음하는 모습.



이런 건강관리 웨어러블 기계들과 더불어 간단한 의료 지식을 검색하고 원격 상담 서비스를 받는 시장 또한 커지고 있다. MBC 의학 전문 기자 출신인 신재원 대표는 아이가 열이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알려주는 ‘열나요’ 앱을 개발했다. 나이·몸무게·성별 등을 설정하고 시간마다 체온을 입력하면 빅데이터로 어떤 해열제를 언제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교차 복용 가능한 해열제는 무엇인지, 병원에 가야 할 만큼 심각한 상태인지 등을 알려준다. 해열제에 대한 기본 상식이 없는 부모도 아이의 상태를 기입한 다음 의학적 조언을 토대로 지혜롭게 열을 관리할 수 있다. 아이가 아파 마음 졸이는 부모에게 큰 힘이 되어 출시 3년 만에 부모들의 입소문을 타고 25만 명이 다운로드했다. 회원들이 실시간으로 입력한 체온, 증상, 예방접종, 해열제 정보 등 빅데이터가 많아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하기 전에 이미 열 관련 유행성 질병을 먼저 인지할 정도다.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주치의는 필요하다. ‘환자와 의사를 연결해주는 춘위성^{春雨醫生}’이라는 중국의 모바일 서비스는 2011년 서비스를 시작해 누적 이용자가 9000만 명을 넘어섰고, 등록된 의사만 50만 명이다. 환자가 증상을 올리면 3분 이내에 의사와 연결하고 관련된 정보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제공한다.

4차 산업혁명 이후 기업 서비스의 중심

건강한 당신의 여가 생활에는 음악이 있고, 패션이 있고, 영화가 있다. 그리고 당신의 여가생활에는 이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깊숙이 들어와 있다. 고객의 취향과 건강을 저장하는 기업의 바탕에는 좋은 데이터가 있다. 세계 1위 기업들은 좋은 데이터를 축적, 관리, 분석하는 역량이 탁월하다. 데이터 이면에 있는 인간의 감정과 심리를 읽는 통찰력이 뛰어나고, 이를 서비스와 솔루션으로 구현하는 역량도 탁월하다.

과거에는 엄청난 하드웨어 기술을 가진 기업이 세상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데이터 활용 역량이 뛰어난 기업이 세상을 이끌고 있다. 단지 데이터를 쌓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객이 불편한 것은 무엇인지를 파악해 고객별 취향 저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앞서나가고 있다. 우리가 선택하는 기업은 양질의 데이터를 쌓고,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고객의 취향을 저장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여기에 기업의 미래 성장 잠재력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

● **윤정원** 기업 교육과 CEO 비즈니스 전문가이자 이노핏파트너스 CEO,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특임교수.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기업의 리더들에게 미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다양한 교육 프로젝트를 설계·운영하고 있다. 펄낸 책으로는 <끌리는 것들의 비밀: 팔리는 상품, 서비스, 공간에 숨은 8가지 법칙>, <에듀솔방: 기업의 운명을 바꾸다> 등이 있다.

미국 시인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는 “노년은 청춘 못지않은 좋은 기회”라고 했다. 은퇴 후에도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는 여가를 통해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착실히 쌓은 지식과 기술을 나누면 혼자만의 즐거움에서 나아가 사회에 기여하는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오랜 시간 쌓은 노하우에 지식을 더해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는 여가 활동을 소개한다.

글. 이준관 에디터

배우고 즐기며 삶을 업그레이드하다

일상의 품격을 높이는 여가

타샤 튜더는 미국의 유명한 삽화가이자 동화 작가다. 동화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칼데콧상을 2회 수상했고, 미국 백악관의 크리스마스카드에도 그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는 평생 100여 권의 동화책을 냈고, 19세기 미국의 전원 풍경을 담은 삽화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그가 손수 가꾼 정원은 그 못지않게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다.

타샤 튜더는 56세가 되던 해 자신의 그림책 〈코기빌〉이 크게 성공하면서 버몬트주에 30만 평의 버려진 감자 농장을 사들였다. 거기에 집을 짓고 정원을 가꾸며 여생을 보냈다. 은퇴 후 편안한 노후를 만끽해도 될 나이에 그는 새로운 터전을 찾아 제2의 삶을 일군 셈이다. 그는 볼모지나 다름없던 농장을 손수 가꾸고 꽃과 나무를 심어 멋진 정원으로 만들었다.

그의 정원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천상의 정원’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색상의 조화를 고려한 꽃의 배치, 계절에 따라 과일이 열리는 나무, 자급자족을 위해 기른 다양한 작물이 그곳을 모두가 꿈꾸는 정원으로 만들어주었다. 모든 건 타샤 튜더가 자신이 꿈꾸던 삶을 실현하기 위해 손수 땅을 일구고 가꾼 덕분이다. 타샤 튜더는 2008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손길이 오랫동안 닿은 정원은 여전히 많은 이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투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을 만큼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정원’으로 사랑받고 있다.

평생 취미인 정원 가꾸기를 통해 많은 이에게 감동을 준 타샤 튜더처럼, 여가를 보내는 방법에 따라 나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 수 있다. 또 한 분야에 깊은 관심을 두고 몰두하면 전문 지식과 기술까지 갖출 수 있다.



타샤 튜더(Tasha Tudor, 1915~2008년)는 미국의 동화 작가이자 유명 삽화가다. 중년 이후 버몬트주에 18세기식 농가를 짓고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며 자연주의 생활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녀가 가꾼 정원은 〈타샤의 정원〉(월북) 등 책으로 전 세계인에게 소개되어 많은 이에게 영감을 주었다.

오랜 취미에 지식을 더해 전문가로

오래 즐기는 취미에 지식을 더하면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여는 전문가로 변신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가 생활을 꿈꾼다면 도전해보자.

제2의 타샤 튜더를 꿈꾼다면, 조경사·정원사

최근에는 미세먼지와 환경오염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정원을 가꾸고 식물을 기르는 데 특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식물은 실내의 미세먼지를 줄여주고 습도를 조절해준다. 또 세련된 인테리어에도 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식물^{Plant}과 인테리어^{Interior}를 합친 ‘플랜테리어^{Planterior}’가 집 안 가꾸기의 트렌드로 떠오른 지 오래다. ‘반려식물’이라고 부르며 집 안에 작은 정원을 가꾸는 ‘홈 가드닝’ 또한 최신 트렌드 중 하나.

식물을 기르는 일은 시간이 쌓일수록 노하우도 생기고 지식도 늘어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몇 가지 전문 지식만 갖추면 식물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은 ‘시민정원사’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서 운영 중인 제도로, 12~14주에 걸친 소정의 교육과정을 통해 조경과 정원에 대한 전문 지식과 실습 경험을 쌓을 수 있다. 교육을 수료한 후에는 마을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마을 정원 리더’로 활동할 수 있다.

식물 전문가로서 자격증까지 갖추고 싶다면 조경기능사에 도전해보자. 식물과 토목, 물, 조형물 등을 이용해 생활공간을 꾸미고 식물을 관리하는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국가 공인 자격이다. 식물에 관한 지식은 물론 설계 도면 작성과 판독, 시설물 설치, 지반 고르기 등 지식과 실습을 겸비한다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다. 조경기능사로 1년의 경력을 쌓으면 조경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알고 마시면 더욱 맛있다, 와인 전문가 WSET

와인을 취미로 즐기는 인구가 늘고 있다. 알코올 도수가 평균 10도 안팎으로 높지 않고, 맛과 향이 풍부해 누구에게나 매력적으로 다가간다는 점이 인기의 비결로 꼽힌다. 와인은 단순히 취하기 위해 마시는 술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통한다. 와인 관련 매너는 물론 마시는 방법, 품종과 산지 등 와인에 관한 방대한 지식을 조금씩 쌓는 재미가 있다. 와인을 잘 아는 사람은 비즈니스 상대와의 식사 자리에서 와인으로 이야기를 풀어내거나, 특별한 날 와인 선물을 통해 관계를 돈독히 하는 등 와인을 자신만의 비즈니스 경쟁력으로 만들기도 한다.

물론 와인에도 전문 자격이 있다. 흔히 소믈리에를 떠올리지만, 전문 직업인을 꿈꾸지 않는 이상 쉽게 접근하기 힘든 영역이다. 단계별로 와인 지식을 쌓는 데는 WSET^{Wine & Spirit Education Trust}가 제격이다. 1969년 영국에서 설립된 국제와인전문 교육 및 전문가 인증 기관으로, 국내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입문·중급·고급 과정이 있는데, 입문 과정에서는 시음을 통해 대표 포도 품종의 특징을 배우거나 기초적인 와인 지식을 쌓을 수 있다. 중급과 고급 과정에서는 포도 산지의 특징과 와인 양조, 와인 등급 체계 등 더욱 심화된 지식을 습득한다. 전문 교육기관에서 각 단계를 수료한 후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황혼육아에 전문성을 더하다, 보육교사 자격증

우리나라 은퇴 인구의 절반 이상이 ‘황혼육아’를 겪는다. 맞벌이하는 자녀 부부를 위해 손주들을 돌보는 것. 하지만 유경험자라고 해도 과거와 너무도 달라진 양육 환경과 유아교육 방식 때문에 혼란을 겪는 조부모가 많다. 이럴 때 양육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우면 황혼육아에도 전문성을 갖추 수 있고,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은퇴 후 유망 자격증 중 하나로 꼽히는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된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은 국가 공인 자격증이다. 전문대 졸업 이상의 최종 학력을 보유했다면 1년~1년 6개월 만에 취득 가능하다. 아동학과 관련한 17개 과목, 51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만약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이라면 총 80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과정을 마치는 데 보통 2년 정도 걸린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각 사 이버대학교 등을 비롯해 학점은행제를 실시하는 각 대학의 평생교육원, 자격증 취득 기관을 통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대부분의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보육교사 자격 강화 정책에 따라 9개 과목은 반드시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어린 이집에서 보육 실습을 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린이집 교사로 취업할 수 있다. 또 3년 이상 경력을 쌓고 승급 교육을 받으면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보육교사 1급은 3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험을 쌓으면 어린이집 원장이 될 수 있으며, 나이가 더 들어서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운동의 고수를 전문가로, 생활스포츠지도사

운동은 신체 건강에도 좋지만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좋은 방법은 운동을 즐기는 것이다. 신체 활동은 뇌에서 세로토닌의 합성을 활발하게 해주고, 행복감을 높여주는 베타엔돌핀의 분비를 증가시켜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단순히 취미로만 즐기는 운동이라고 해도 오랜 경력이 쌓이면 선수급의 실력을 갖게 된다. 또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초심자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는 강사급의 실력을 갖춘 이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혼자서 즐기는 운동을 넘어 전문가로서 타인에게 운동의 즐거움을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건 어떨까? 국가 공인 자격인 생활스포츠지도사가 되는 것이다.

생활스포츠지도사는 일반 국민이 일상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육하는 사람이다. 유소년 스포츠 활동이나 직장인 동호회, 체육 시설 등에서 활동하는 트레이너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물론 피트니스 클럽에서 만나는 헬스 트레이너도 포함된다. 생활스포츠지도사는 보디빌딩을 비롯해 골프, 농구, 당구, 볼링, 등산, 테니스 등 총 42개 종목으로 구분된다. 평소 즐기던 종목 중 하나를 선택해 도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등 7개 과목

중 5개 과목을 선택해 평균 60점 이상 받으면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실기는 해당 종목의 기본자세와 호흡법 등을 평가하므로 기초적인 내용만 숙지하면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다.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액티비티

잔잔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다면 각종 액티비티에 도전해보자.
몸으로 기술을 익히고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마주하며 커다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초경량 항공기

누구나 하늘을 나는 꿈을 꾀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누비는 파일럿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 무게 600kg 이하, 2인승 이하의 경비행기는 안전하고 간편하게 파일럿의 꿈을 이뤄준다. 정부 지정 전문 교육기관에서 3개월간 항공법 등의 이론과 실기를 배우면 경비행기 조종에 도전할 수 있다. 교육 비용은 650만원 정도. 쉽게 결정하기 힘들다면 우선 체험 비행에 참가해보자. 10~20분간 전문 조종사와 동승해 비행의 즐거움을 느껴볼 수 있다. 활주로를 달려 지면에서 떠오를 때의 해방감과 공중에서 선회할 때 느껴지는 짜릿함이 더없는 쾌감으로 다가온다.

☉ 에어랜드항공 합천 항공스쿨 www.air276.com

활주로, 경량 항공기, 항공 정비사 등을 보유한 국토교통부 지정 경량 항공기 조종사 과정 전문 교육기관. 경량 항공기 체험과 조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경량 항공기 등의 정비와 수리도 가능하다.





탱고, 그 매혹적인 춤사위

탱고는 로맨틱하고 격정적인 춤이다. 남녀가 가슴과 이마를 맞대고 포옹하는 듯한 자세로 절도 있게 추는 춤은 보는 이를 매혹시킨다. 반도네온(아코디언을 닮은 손풍금) 음악이 몸을 절로 움직이게 한다. 19세기 후반 아르헨티나에서 시작된 탱고는 부부나 연인이 함께 즐기면 좋은 댄스 스포츠다. 춤을 추는 동안 교감하며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은 물론, 운동량 또한 상당해 건강을 가꾸는 데도 도움을 준다. 동작이 현란해 보여 어렵게 느껴지지만, 기본적인 스텝만 익히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춤이다. 자유롭게 탱고를 즐기려면 춤을 리드해야 하는 남성은 6개월~1년, 여성은 3~6개월 정도 배워야 한다.

☎ **엘 땅고** <http://cafe.daum.net/eltangocafe>

2009년 서초구 잠원동에 문을 연 탱고 카페. 서울탱고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초급부터 전문가, 강사반 과정까지 다양한 클래스가 준비되어 있다. 매달 초 주중•주말 초급 속성반이 개강해 4주 과정으로 진행한다. 강습료는 월 10만원.



스쿠버다이빙

스쿠버다이빙은 물속의 또 다른 세상을 만나는 레저 스포츠다. 다채로운 어종과 해조류가 어우러져 환상적인 풍경이 펼쳐지는 수중 세계에서 중력의 억압을 벗어나 상하좌우로 마음껏 유영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큰 매력이다. 스쿠버다이빙은 입문 과정인 오픈워터를 거쳐 중급 과정인 어드밴스드 오픈워터까지 수료하면 강사의 감독 없이도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물론 안전을 위해 최소 2인 1조를 이루는 건 필수다. 국내에서는 제주도 경상북도 울진, 남해안이 스쿠버다이빙 포인트로 인기가 높다.

☎ **잠실스쿠버스쿨** www.jsscuba.co.kr

서울에서 유일하게 전용 풀장을 갖춘 스쿠버 센터로, 국제 공인 스쿠버 단체인 PADI의 공인 교육 센터다. 국내 최대 규모, 최다 강사진을 자랑한다. 오픈 워터와 어드밴스드 오픈 워터 교육을 패키지로 받는 프로그램 가격은 28만원.



액티비티 마니아들의 버킷 리스트

액티비티 마니아들의 성지로 불리는 세계 최고의 포인트를 소개한다.

탱고

아르헨티나, 라보카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남쪽의 작은 항구도시 라보카는 탱고의 발상지다. 탱고의 성지답게 거리마다 탱고에 관한 벽화가 그려져 있고, 실제 탱고를 추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또 대부분의 카페와 레스토랑에는 작은 무대가 마련돼 있어 전문 무용수들의 탱고를 감상하며 식사나 차를 즐길 수 있다.



스카이다이빙

벨리즈, 그레이트블루홀

그레이트블루홀은 멕시코 남쪽의 작은 나라 벨리즈에 있는 환초 지대다. '지구의 눈'으로 불리는 이곳은 지름 300m, 깊이 124m의 거대한 바다 구멍으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록돼 있다. 눈부시게 파란 바다 가운데에 모든 걸 집어삼킬 듯한 짙은 색깔의 그레이트블루홀은 비행기에서 낙하하는 동안 지구 반대편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환상을 선사한다.



스쿠버다이빙

호주, 그레이트배리어리프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대인 그레이트배리어리프는 дай버들이 늘 꿈꾸는 다이빙 포인트다. 3000개 이상의 산호초와 산호섬이 절경을 이룬다. 듀공과 거북, 상어 등을 비롯해 1500여 종의 해양 생물을 관찰할 수 있고, 운이 좋으면 고래와 돌고래도 볼 수 있다. 수백 가지의 형형색색 산호초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수온이 20~31℃로 따스한 편이어서 사계절 언제든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



실내 스카이다이빙

스카이다이빙은 맨몸으로 하늘을 날며 자유를 만끽하는 익스트림 스포츠다. 비행기에서 고공 낙하해야 하는 만큼 위험부담이 있어 도전하기 쉽지 않은 종목이지만, 이제는 안전하게 즐길 방법이 생겼다. 실내 스카이다이빙이다. 지상에 지름 4.5m, 높이 19m의 윈드 터널^{Wind Tunnel}을 설치하고 강력한 상승기류를 발생시킨다. 그 안에서 몸을 펼치면 공중으로 날아올라 실제 스카이다이빙과 똑같은 스틸을 만끽할 수 있다. 지상에서 안전 수칙과 자세에 관한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즐길 수 있으며, 윈드 터널 안에서도 전문 강사가 함께 안전하게 지도해준다. 일정 교육 이후에는 혼자서 자유 다이빙도 즐길 수 있다.

◎ 플라이스테이션 www.flystation.kr

2019년 용인에 개장한 국내 유일의 실내 스카이다이빙 체험장이다. 체험 프로그램과 플라이스쿨을 통해 스카이다이빙의 자세와 동작을 안전하게 배울 수 있다. 플라이스쿨은 10분씩 3회의 수업으로 이루어지며 비용은 45만원.



모든 산업이 디지털로, 가상 세계로 집약되고 있지만 인간은
빌딩 숲에서만 살아갈 순 없다. 우리 역시 자연의 일부이기에
기술 발전으로 늘어난 여가 시간을 자연 속에서 쉬고 싶어 한다.
모든 것을 갖춘 자연 속 휴식 공간에서 삶의 지혜를 느껴보자.
산속에 숨어 있는 비밀스러운 안식처다

글. 이현화 에디터 사진. 문덕관, 세이지우드 홍천

자연의 품에서 보내는 평온한 여가

SAGEWOOD
HONGCHEON

삶을 지혜롭게 만드는 휴식

세이지우드 홍천은 청정
강원도의 자연 속에서 조용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인근에 블루마운틴 골프클럽이
있고 내부에 수영장, 도서관,
레스토랑을 갖춰 편안하게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약 1시간 반 거리, 홍천은 서울에서 아주 가까운 자연 그대로의 강원도일지도 모른다.
깎아지른 듯한 계곡과 여름 레포츠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홍천이지만, 이곳에는 골프
마니아의 호승심을 자극하는 장소가 있다. 바로 블루마운틴 골프클럽. 골프계의 전설
잭 니클라우스^{Jack Nicklaus}가 디자인한 3개 코스 27개 홀이 산양이 뛰어놀던 대자연 위에
펼쳐져 각자의 매력을 발산하는 곳이다. 그리고 지난 6월, 블루마운틴 골프클럽을 가장
잘 조망할 수 있는 자리에 고즈넉한 리조트가 문을 열었다.



숲속에서 즐기는 럭셔리한 휴식

해발 765m 산 위로 올라왔을 뿐인데 기온이 2℃가량 떨어지면서 공기의 청량함이 확연히 다르다. 나무와 돌의 질감을 살려 배치한 건축의 조형미와 마치 유럽 정원을 옮겨놓은 듯한 세심하고 아름다운 조경, 어느쪽으로 고개를 돌리든 나무가 보이는 천혜의 환경 덕분에 꼭 숲속에 들어온 것만 같다.

88평형 프레스티지 스위트와 53평형 로열 스위트는 3개 침실과 거실, 주방, 테라스로 구성해 가족 단위의 투숙객도 완벽하게 프라이빗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특히 객실 크기를 크게 하고 객실 수를 줄이는 과감한 선택에 박수가 절로 나온다. 언제 찾아도 고요한 사색이 보장될 테니까.

1 세이지우드 로비에서는 나무와 돌의 질감을 살린 건축의 조형미를 느낄 수 있다.

2, 5 사계절 미온수를 유지하는 대규모 아웃도어 풀뿐 아니라 인도어 풀도 갖추었다.

3, 4 88평형 프레스티지 스위트는 3개 침실과 거실, 주방, 테라스까지 갖춰 가족을 위한 프라이빗한 별장 같은 느낌이다.



강원도 지역과 세계의 미식

세이지우드 홍천의 베스트 포토 스폿은 아웃도어 풀이다. 푸르른 골프 코스 넘어 소뿔산 자락이 눈앞에 펼쳐지는 인피니티 풀 주변으로 보랏빛 우드세이지꽃이 활짝 피어 눈이 호사스럽다. 바로 옆에는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 가정식을 선보이는 레스토랑과 풀사이드 바가 있어 식사를 하거나 가볍게 목을 축일 수 있다.

추천 메뉴는 한우안심&로브스터 그릴. 재료 본연의 맛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토스카나 스타일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음식이다. 물론 강원도에서 빠지면 서운한 춘천 닭갈비와 막국수도 먹을 수 있다. 칼리가리^{Caligari} 브루잉과 컬래버레이션한 세이지우드 에일 맥주도 꼭 한번 마셔보길 권한다. 코끝에 퍼지는 플로럴 향과 샴페인 같은 청량감이 일품이다.



모든 공간에서 느끼는 우아함

보다 완벽한 사색을 하기 위해 북 카페로 향했다. 이곳에서는 예술·문화·과학·인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서적 1800여 권을 만날 수 있다. 책만 읽어도 하루가 금방 지나갈 정도다. 재미있게도 요청하면 직원이 책을 추천해주기도 하는데, 요청자의 직업과 전혀 상관없는 낯선 분야를 추천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웃도어 풀 옆에 있는 라이브러리도 꼭 들러야 할 곳이다. 이곳에는 여행책과 사진집 위주의 해외 원서가 많으니 파로스 등대처럼 사고의 경계가 허물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이슬비를 머금은 수국과 우드세이지가 핀 정원을 잠시 산책해본다. 해발 765m라더니, 산 위에는 그새 비가 조금 내렸나 보다. 바람이 머무는 호젓한 윈디 가든... 스마트폰 알람 대신 새가 지저귀고, 방금 지나간 비구름에 흙·돌·나무 냄새가 축축이 묻어난다. '삶을 지혜롭게 만드는 것은 완벽한 휴식입니다'라는 모토로 운영하는 세이지우드 홍천에서는 누구나 평화롭고 지혜로워진다. ■

◎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광석로 898-87, www.sagewood.co.kr

- 1, 2 레스토랑에서는 강원도 지역 음식과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 가정식을 맛볼 수 있다.
- 3 특제 에일 맥주와 쉬림프 오일파스타
- 4 세이지우드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춘천닭갈비와 막국수
- 5 한우안심&로브스터 그릴
- 6 예술·여행·패션 등 다양한 분야의 서적을 갖춘 라이브러리



글로벌 자산배분은 미래에셋 ETF로!

미래에셋은 한국, 미국, 홍콩, 캐나다 등 8개국에 걸쳐 글로벌 ETF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 'TIGER ETF'를 비롯해 캐나다 'Horizons', 호주 'BetaShares', 미국 ETF 운용사 'Global X'를 인수하여

ETF 자산운용 규모는 세계 10위권으로 올라섰습니다. (기준일 : 2019년 2월 28일)

미래에셋의 글로벌 투자역량과 선진 ETF 운용 기법을 통해 글로벌 우량 ETF를 제공할 것입니다.

| 판매사 |

글로벌 투자 파트너 -

MIRAE ASSET
미래에셋대우

| 운용사 |

원칙을 지키는 투자 -

MIRAE ASSET
미래에셋자산운용

■ 집합투자증권은 운영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수수료 및 환매 방법 등에 관하여(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수·수수료 외에 증권거래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일할 때처럼 창조력을 발휘하고
정력을 쏟아야 한다. 사람을
성숙시키는 능동적 여가는 저절로
굴러오는 게 아니다.”

_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심리학자, <몰입의 즐거움> 저자)

46 살롱 문화, 취미의 공유를 넘어서는 시너지
문화와 예술을 교류하는 여가 시간

52 ‘한국식 살롱’을 이끄는 공간
취향이 맞는 이들과 함께 보내는 여가 시간

56 무엇을 할까 고민된다면
‘취향 구독’

62 입고 싶은 것을 멋지게 입기
시니어의 패션 자신감, 그레이 크러시

매월 마지막 금요일 퇴근길, 그들은 살롱에 간다.

살롱에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모이게 하는 힘이 있다. 무엇이 이들을 행복하게 할까? 살롱 문화에는 여가 시간의 공유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에 대한 생각을 교류하는 전통이 녹아 있다. 살롱 문화의 역사와 지금 우리에게 다시 찾아온 살롱의 의미를 이야기한다.

글. 유혜선 G-SM컨설팅 대표, '와인 인문학 살롱' 운영자

살롱 문화, 취미의 공유를 넘어서는 시너지

문화와 예술을 교류하는 여가 시간



18세기 프랑스에서 이룬난 조프랭 부인의 살롱. 조프랭 부인의 살롱은 예술가와 계몽사상가 등이 의견을 교류한 '담론의 장'이었다. 아니세 샤를 가브리엘 르모니에, '1755년 마담 조프랭의 살롱', 1812년.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의 살롱 공간 모습. 살롱은 귀족들이 문인, 예술가를 초청해 토론을 하거나 음악을 듣는 공간이었다. 손님을 맞이하는 곳으로 성이나 저택에서 가장 공들여서 꾸미는 공간 중 하나였다.

살롱에는 자유정신과 카르페디엠이 있다

하루의 삶 속에서 속박과 답답함을 느낄 때, 뭔가 갈망하고 갈증을 느낄 때, 사람들은 자유정신이 살아 숨 쉬는 살롱에서 더없는 해방감을 느낀다. 자유정신 속에는 파괴성과 창조성이 공존한다. 파괴성이란 언젠가는 자신에게도 불행이 닥칠 것이라는 불행에 대한 인식이며, 창조성이란 이제껏 자신이 해온 역할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더 높이는 것이다. 살롱에서는 자유정신에 대한 깊은 영혼의 소리를 통해 성공에 대한 열망과 그것으로부터 매몰되지 않는 자신을 분리해내는 능력을 배운다. 깊어가는 살롱의 밤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꽃핀다. 직장도 가정도 아닌,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제3의 공간이며, 지나친 욕망으로부터 자제와 절제를 시켜주는 물뿌리개와 같다. 살롱에는 모든 인생이 다 녹아 있다. 서로를 환대하며 서로의 느낌을 편안히 나누는 곳, 살롱은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면서 그 자체가 따뜻한 매개체인 것이다.



플라톤의 〈향연〉에는 아테네의 젊은 귀족들이 정치, 문학, 철학에 대해 담론과 토론을 나누는 모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고대 그리스의 이러한 문화는 이후 플라자와 포럼, 살롱으로 이어진다. 라파엘로, '아테네 학당', 1509~1511년.

살롱 모임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프랑스어 살롱^{Salon}은 매우 매력적인 단어다. 그 말 속에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마담과 당대의 진지한 지성인들, 그리고 문학, 미술, 음악은 물론이고 과학까지 포괄하는 그 시대의 모든 지식과 문화가 녹아 있다. 살롱 문화는 유럽 17~18세기 유럽 귀부인의 테라스에서 시작되었다. 귀족 출신 여성들이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간단하게 차를 마시면서 시작한 살롱은 주인 마담들의 고상한 취향과 지식에 대한 열정으로 그림과 음악, 시와 문학 그리고 토론이 함께하는 학습과 사교의 공간으로 발전했다. 로코코 시대의 유럽 문화가 화려하게 꽃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살롱에서의 예술과 문화적 담론 덕분이다. 지성인들의 담론은 시대의 흐름을 꿰뚫고 시대정신을 만들어내기도 했으며, 여성과 평범한 시민들도 역사와 시대정신에 눈뜨게 하는 학습의 공간이 되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살롱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원전 4~5세기 그리스 아테네의 젊은 귀족들은 스포츠를 통해 몸과 마음과 정신력을 일깨우는 동시에 지적인 문화 모임도 가졌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저서 〈향연〉을 보면 지식인들은 당시 화제가 되던 정치, 문학, 철학의 주제에 대해 와인을 즐기며 담론과 토론을 나누

었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이러한 문화는 로마 시대 지식인과 예술가들의 대화의 장이던 플라자^{Plaza}와 포럼^{Forum}으로 이어졌고, 르네상스 시대에는 종교인과 지식인이 예술가들과 함께 아름다운 산문과 시, 음악을 향유하던 무젠호프^{Musenhof}를 거쳐 프랑스의 살롱^{Salon}이 생겨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프랑스 마담과 이탈리아 살로니에르

프랑스에서는 마담이, 이탈리아에서는 살로니에르^{Salonnière}가 살롱의 편안한 토론 분위기를 만들며 모임을 진행했다. 최초의 살롱 마담은 1608년 랑부에 부인이다. 랑부에는 값비싼 조명과 화려한 장식품으로 꾸민 멋진 저택에서 소수의 귀족, 작가, 법관, 철학자, 성직자들과 함께 책을 읽고 시를 읊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했다. 만남은 곧 우아하고 세련된 화법으로 담소를 나누거나 문학작품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살롱 문화〉의 저자 서정복 교수는 “살롱은 사교의 장^場인 동시에 지성인들의 사상 교류의 장이 되었다”고 말한다. 당시 남녀가 자유롭게 만나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살롱은 폭발적 인기를 끌었고, 18세기 후반에는 살롱의 수가 800개가 넘을 정도였다.

랑부에 부인 이후로 프랑스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수많은 ‘스타 마담’이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했는데, 그중에서도 여성해방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 마담 랑베르, 정계 진출의 야망을 가졌던 마담 탕생, 순박하고 겸허하며 예술적이었던 마담 조프랭, 재치와 지성으로 충만했던 마담 데팡 등을 꼽을 수 있다.

18세기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살롱을 운영했던 조프랭 부인^{Mme. de Geoffrin}은 자신의 살롱에 철학자와 문학가, 예술가 등을 요일별로 초대했다. 고정적으로 운영되며 전 유럽에까지 명성이 자자했던 그녀의 살롱은 백과전서파^{百科全書派}¹⁾의 사상적 실험실이자 몽테스키외·볼테르 등 계몽사상가들이 지성을 교류하는 장이 되었다. 또 조각가 부샤르동, 화가 반 루와 부세 등이 모여 예술적 교류를 이어가기도 했다.



최초의 살롱 마담 랑부에 부인이 모임을 주최했던 랑부에 저택의 모습.

1) 백과전서파(百科全書派), 18세기에 반봉건적·무신론적 성향을 담은 〈백과전서〉간행과 집필에 참여한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집단.



살롱에서 벌어진 철학과 문학, 정치학 토론은 계몽주의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니콜라 앙드레 몽시외, '니농 드 랑클로의 집에서 타르튀프를 읽는 몰리에르', 18세기.

음악가들도 살롱에서 후원자를 찾거나 귀족 계층, 다른 예술가들과 교류했는데, 특히 피아니스트 쇼팽의 일화가 유명하다. 쇼팽은 녹턴 등 살롱에 적합한 실내악곡을 여럿 작곡했는데, 몇몇 녹턴 곡은 살롱의 주최자에게 헌정하기도 했다. 쇼팽의 곡 선물을 받은 이는 19세기 파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살롱을 운영한 오스트리아 대사 부인 아포니 Apponyi다. 쇼팽이 운명의 연인이자 여섯 살 연상의 소설가 조르주 상드를 만난 것도 살롱에서였다.

무관의 여왕, 루이 15세의 총애를 받은 퐁파두르 부인은 많은 예술가를 지원한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몽테스키외 등 가난한 사상가들을 지원해 백과사전을 집필하게 함으로써 당시의 일반 서민과 여성들의 의식을 일깨우는 결정적 역할을 한 시대사적 인물이기도 하다. 나중에 점차 정치색이 짙어지는 모임으로 지목되기도 했지만, 살롱의 정체성은 누가 뭐라 해도 문화 지향적인 사람들이 모여 순수하고 즐겁게 교류했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나라로 이어지는 살롱 문화

미래에셋대우는 2012년부터 최상위 VIP인 오블리제 클럽 고객을 대상으로 프라이빗 문화·예술 클래스 '살롱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오페라, 고전^{古典}, 예술, 미술 시장 트렌드 등 다양한 인문학적 주제를 고객의 품격에 맞게 구성해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참석하는 고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대의 성인에게는 공부를 놀이처럼 즐기면서 자신을 채울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평생 학습의 시대, 성인 학습은 상호 학습이다. 또한 성인 학습은 고품격 놀



파리의 음악 살롱은 새로운 실내악을 들을 수 있는 장소였다. 어린 모차르트가 파리에 방문했을 때 데뷔 무대도 콩티 공작의 살롱이었다.

미셸 바르텔레미 올리비에, '1764년 템플성, 카트르 글라스의 살롱에서 영국식 티타임', 18세기.

이다. 각자가 경험하고 가진 지식과 노하우를 서로 나누며 공유하는 것이다. 일생을 통해 평생 학습하는 자세로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변화무쌍한 질곡의 세상을 좀 더 인문학적으로 살지 않을까.

인문학 살롱에서는 음악, 시, 미술, 문학, 철학, 금융, 와인 등 다양하고 폭넓은 주제가 오간다. 평생 공부해야 하는 지적 경쟁력의 시대에 소중한 만남과 유익한 정보 그리고 학습이 함께 어우러지는 즐겁고 재미있는 학습의 장이다. SNS와 피상적 인간관계에 지친 이들을 위한 감성적 대화 문화의 산실, 성인 학습의 품격 있는 공간으로 기능할 새로운 한국적 살롱 문화의 부활을 꿈꾸어본다. ■

● 유혜선 G-SM(Global-Service Marketing)컨설팅 대표로 10년째 문화계 명사들의 강연 등과 함께하는 와인 인문학 살롱을 운영하고 있다. 저서로 〈당당한 서비스〉, 〈블루스타킹: 집자는 카리스마에 키스하라〉, 〈그녀의 명품 스피치〉 등이 있다.

한국의 살롱 문화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나이와 직업을 불문하고 같은 여가 활동을 즐기려는 이들이 한 공간에 모인다. 취미 활동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여럿이 혹은 전문가와 함께 하면 더 즐거운 것은 당연지사. 취미와 취향을 오프라인에서 공유하고 새로운 취미를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한다.

글. 이현화 에디터 사진. 취향관, 문토, 신촌살롱

‘한국식 살롱’을 이끄는 공간

취향이 맞는 이들과 함께 보내는 여가 시간



단독주택을 개조해 한국식 응접실 느낌이 나는 취향관에서는 다양한 모임이 열린다.

당신의 사적인 공동체,
‘취향관’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사적인 공동체, ‘취향관’에서는 당신의 직업 또는 사회에서 불리는 호칭을 묻지 않는다. 당신에게 궁금한 것이 있다면 오로지 삶을 마주하는 방식과 가치관, 관심사뿐. 모두 나와 다른 가치를 받아들이고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끼리의 대화에서 필요한 것들이다.

철저하게 멤버십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살롱에 참여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비용은 3개월 35만원부터 6개월 65만원, 1년 120만원 선. 낯선 이들과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대화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러기에 취향관에서는 다양한 주제로 살롱과 파티를 기획한다.

여행의 기억을 담은 사진과 이야기를 모아 여행 가이드북을 만드는 ‘취향의 가이드북’, 여행에서 수집한 것으로 창작물을 만드는 ‘취향의 작업실’, 특별한 존재를 초대해 여행에서 수집한 영감과 비일상적 경험을 나누는 ‘취향탐구생활 with Special Guest’, 취향관 앞마당에서 직접 고른 음악과 영화, 함께 준비한 음식과 술이 어우러지는 파티 ‘취향의 정원’ 등이 대표적이다.

1980년대 단독주택을 개조한 덕분에 응접실 느낌이 제대로 나는 것도 취향관의 매력이다. 살롱의 ‘마담’처럼 대표를 ‘안주인’이라 칭하는 점도 재미있다. 1년에 4번, 시즌 멤버를 모집하니 살롱의 멤버가 되고 싶다면 취향관을 방문해 스태프와 함께 공간을 둘러보자. 홈페이지와 SNS에 비정기적으로 외부 공개 행사를 안내하므로 이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5길 20, www.project-chwihyang.com, 02-332-3181



문토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배울 수 있는 모임을 표방한다.

취향이 통한다, ‘문토’

취향이 통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간 문토는 취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신나게 놀 수 있도록 갈아두는 명석이다. 요리&미식, 경제&경영, 음악, 글쓰기, 문화&예술, 와인&드링크 등 정말 다양한 종류의 모임이 있어 ‘이 중에 당신의 관심사 하나는 있겠지’를 노렸단 싶을 정도다.

그저 모이기만 하는 플랫폼이라면 아쉬웠을 텐데, 문토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깊이 있는 교류를 할 수 있다. 싱어송라이터 송다온의 ‘오늘의 가사’, 예술의전당 클래식 음악 기획자 김방현의 ‘아는 만큼 들리는’, 고수리 작가의 ‘마음 쓰는 밤’, 신소영 셰프의 ‘생각하는 주방’ 등 전문가와 함께 제대로 놀아볼 수 있는 공간이다. 살롱마다 가격과 횟수에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문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현재 신청 가능한 살롱별로 매우 상세하게 설명돼 있다. 이 밖에 일일 회원권도 있으며, 내가 리더가 되어 살롱을 꾸려볼 수도 있다. 관심있으면 홈페이지에서 일대일 문의를 이용하거나 카카오톡에서 ‘문토’를 검색하면 된다.

●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7안길 6 2층, munto.kr, 070-4793-4793

이처럼 매력적인 B급, ‘신촌살롱’

영화 속 술한 조연에게도 걸쭉한 사연은 있는 법. 우리는 너무도 쉽게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란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곤 한다. ‘신촌살롱’은 이처럼 미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한 것, ‘비하인드’를 주제로 강연과 공연, 전시가 열리는 공간이다.

이름이 신촌살롱이니 당연히 신촌에 있을 것 같지만 성수동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신촌살롱의 역사는 ‘신촌극장’에서 시작한다. 2017년, 연세대 연극 동아리 출신 선배들이 술잔을 기울이다 신촌 주택가 골목의 옥탑에 소극장을 차렸다. 이 중심에는 자칭 ‘음주 문화 공간 기획자’ 원부연 대표가 있었다. 대학 시절부터 기발한 문화 활동을 기획해 ‘원부시발(始發)’이란 별명까지 얻은 그는 신촌극장의 정신을 잇는, 사람과 사람이 부대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마침 좋은 제안이 와서 김성우 영화



신촌 살롱은 카페 같은 아지트에서 음악, 문학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다.

프로듀서, 전진모 연극 연출가, 김선민 스타트업 마케터와 함께 성수동에 새로운 아지트를 꾸린 것이다.

영화 B컷 포스터를 전시하며 주목받은 신촌살롱은 오늘도 다양한 비하인드를 다룬다. 배우가 아닌 사람들이 희곡을 읽는 ‘리딩 파티’, 신인 배우·감독·배우지망생이 모이는 ‘셀렙살롱’, 여성 목수의 작품을 전시한 ‘최소의 의자전’, 아티스트와 관객이 함께 만들고 맛보고 나누는 ‘아티스트 레시피’ 등 주제와 방식이 무궁무진하다. 시즌제가 아니고 살롱이 열릴 때마다 선착순으로 멤버를 모집하는 방식이라 약간의 순발력이 필요하다.

주로 인스타그램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데, ‘재즈살롱 드 김아리’를 예로 들자면 이렇다. 영화 <본 투 비 블루>를 감상하면서 재즈 피아니스트 김아리와 함께 트럼펫 연주자 췌 베이커의 삶과 쿨 재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 소정의 참가비(2만5000원)만 내면 영화와 음악, 술이 따라오니 상당히 이득인 셈이다.

●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2길 29, www.instagram.com/sinchon_saloon

인문 예술 공유지, ‘문래당1063’

예술가, 인문학 연구자, 문화 기획자 등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존재이지만 반대로 ‘배고픈 직업’이기도 하다. ‘문래당1063(이하 문래당)’은 본래 이들이 알음알음 모이던 공간이었으나, 철공소 사이로 문화 예술이 꽃피우는 문래동에 자리한 숙명으로 어느새 인문 예술 공유지로 자리매김했다. 운영진에 따르면, “나와 직업, 전공을 떠나 다채로운 취미와 취향을 공유할 수 있는 ‘오픈 동아리방’”이라고 한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인문과 예술, 공학 분야의 이론적 쟁점과 실천적 운동을 토론하는 ‘썸이나는 세미나’, 고전부터 심화까지 다양한 인문 강좌가 열리는 ‘학당 물레’, 무협 소설 또는 동서양의 고전을 재해석하는 팟캐스트, 20세기 후반 작품을 비평적으로 음미하는 ‘인문영화제’ 등 학문적 깊이와 위트를 갖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블로그를 통해 공지하는 소모임과 세미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세어멤버에 가입하면 24시간 자유롭게 문래당을 이용하고 프로그램도 기획할 수 있다. 멤버는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다. ■

●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125길 6 3층, www.moonraedang.net

자신이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확고한 취향을 가진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결정장애를 겪곤 한다.
 이럴 땐 AI에게 물어보자. 내 취향을 족집게처럼 콕 집어줄 것이다.
 취향 분석에서부터 다양한 취미 제안, 꽃과 자동차까지 배송하는
 ‘취향 구독’ 서비스를 소개한다.

글. 이준관 에디터

무엇을 할까 고민된다면

‘취향 구독’



그림을 배우고 싶다면 직접 화방에 나가서 배울 수도 있고, 그림 도구가 들어 있는 취미 키트를 집에서 받아 동영상 강의를 보고 그릴 수도 있다.
 사진은 하비인더박스의 ‘수채 물감으로 그리는 동양화 컬러링 KIT’.

여가 시간에 무얼 하면 좋을까. 내 취향과 취미가 뭔지 모른다고 해도 문제없다. 먼저 말하지 않아도 마음에 쏙 드는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고, 취미도 대신 결정해주니까. AI와 빅데이터 기술이 나의 취향을 분석하는 수준까지 온 덕분이다. 이렇게 결정된 상품과 취미는 박스에 담겨 정기적으로 문 앞까지 배달된다. 취향과 취미를 정기 구독하는 셈이다. 국내에서는 이처럼 취미 생활을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재료를 하나의 박스에 담은 ‘취미 구독’을 중심으로 정기 구독 시장이 급격히 성장 중이다.

이러한 정기 구독 서비스는 이미 ‘구독 경제^{Subscription Economy}’라고 불리며 글로벌 메가트렌드로 각광받고 있다. 구독 경제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모델이다. 특히 소비자의 취향을 분석해 그에 걸맞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큐레이션 서비스’는 구독 경제의 핵심을 이룬다.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에 따르면 2015년 구독 경제 시장 규모는 470조원이었으며, 2020년에는 59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글로벌 메가트렌드 ‘구독 경제’

미국의 월정액 콘텐츠 서비스인 넷플릭스는 소비자의 취향 저격에 성공한 대표적 구독 경제 사례로 손꼽힌다. 이들은 소비자의 시청 이력 등을 분석한 맞춤형 추천으로 수많은 넷플릭스 페인을 양산했다. 오프라인 정기 구독 서비스는 ‘구독 박스^{Subscription Box}’라고 불린다. 미국 시장에서는 특히 소비자의 취향을 분석한 구독 박스가 인기를 끄는데,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소비자의 취향을 저격한 상품을 추천하고 배송해준다.

화장품 구독 사이트 입시^{Ipsy, www.ipsy.com}는 매달 5종의 화장품을 정기 배송한다. 샘플 사이즈는 10달러, 풀 사이즈는 25달러의 구독료를 받는다. 화장품을 추천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GET STARTED’ 버튼을 누르면 맞춤형 배송을 위한 질문이 시작된다. 피부색, 눈 색깔, 화장 실력, 선호하는 브랜드, 선호하는 향 등 구체적인 객관식 질문에 답변하면 내 취향을 파악하고 적절한 화장품을 추천해준다.

윙크와인클럽^{Winc Wine Club, www.winc.com}은 매달 구독자의 취향에 맞춘 4병의 와인을 배송한다. 커피와 소금, 베리류에 대한 취향 등 여섯 가지 질문으로 입맛을 파악하고, 레드와 화이트를 각각 몇 병씩 받을지만 결정하면 병당 13달러 내외의 와인을 받아볼 수 있다.

물론 구독자가 자신의 취향에 따라 직접 상품을 선택해 구독하는 방법도 있다. 미국의 취미 구독 사이트 크레이트조이^{cratejoy.com}는 뷰티, 서적, 피트니스 등 다양한 분야의 구독 박스를 총망라해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식물 종자와 묘목 등 홈 가드닝용품을 비롯해 다채로운 레코드 컬렉션, 테니스 관련 용품 등 거의 모든 취미 구독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달 정기 배송되는 '취미 박스'

국내 정기 구독 시장에서는 취미 구독이 단연 돋보인다. 최근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주 52시간 근무시간 정착으로 인해 저녁이 있는 삶을 살게 된 직장인들이 적극적으로 여가 즐기기에 나서면서 취미 정기 구독 서비스의 성장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정말 자신의 취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면 하비박스 www.hobbybox.life에서 답을 찾아보자. 취미 분석 테스트를 통해 구독자의 성향과 선호도를 파악하고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알려준다. 이를 토대로 알맞은 취미를 추천하며, 하비박스의 취미 전문가 '하비큐레이터'도 소개한다. 하비큐레이터는 각 분야에서 일정한 커리큘럼에 따라 박스를 배송해 구독자의 취미 생활을 이끌어준다. 매달 색다른 취미를 즐기고 싶다면 '랜덤하비박스'를 선택하면 된다.

하비인더박스 hobbyinthebox.co.kr는 2016년 국내 최초로 취미 정기 구독 서비스를 시작한 플랫폼이다. 젤리 곰 비누만들기, 가죽 카드 지갑 만들기 등 가볍게 즐길 수 있는 DIY 상품을 주로 판매한다. 취미 상점에서는 입문자 추천, 엄마랑 아이랑, 교육용/단체 취미 등 상황에 맞는 취미 키트를 추천해준다. 크리에이터 상점에서는 제휴 작가들의 완제품도 판매한다.

아기자기한 수공예품을 좋아한다면 하비풀 hobbyful.co.kr에 주목하자. 프랑스 자수, 수채화, 뜨개질 등 공예 중심의 취미 정기 구독이 기다린다. 커리큘럼에 따라 정기 구독 기간이 정해지며, 그동안 모든 재료와 도구가 들어 있는 클래스 키트를 매달 배송받는다. 클래스 동영상을 통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하비인더박스의 취미 상점에서는 수예, 그림, 가죽공예, 인테리어 소품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준비물이 들어 있는 박스를 배송받아 체험해볼 수 있다.



취미 수강은 박물관 투어 등 야외 공간으로 확대된다. 관심 분야가 같은 사람들을 만나 여가 시간을 공유하고 지식과 문화를 배우는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취미 수강의 형태도 달라졌다

클래스101 class101.net은 동영상 강의 중심의 취미 구독 서비스다. DIY에 국한하지 않고 작곡과 운동, 커피 브루잉, 드로잉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진행하는 취미 강의를 모바일 앱을 통해 보고 배울 수 있다. 수강 준비물이 필요한 자수, 우드 카빙 등 관련 도구와 재료 일체를 수강생에게 보내준다.

메이아일랜드 mayisland.com는 원데이 및 정규 클래스, 취미 상품을 모두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자수와 비누 만들기 등 실내에서 진행되는 강의는 물론, 고궁과 박물관 투어 등 야외 클래스도 마련돼 있다. 취미 상품인 '메이박스'는 DIY 키트로, 모든 재료와 상세한 가이드북을 함께 배송해준다.

탈잉 taling.me은 자신만의 취미를 즐기다가 전문가 수준에 오른 튜터(강사)들의 재능 공유 플랫폼이다. '소파에 누워 핸드폰 보는 잉여 시간을 탈출시켜보자'는 취지로 탄생했다. 나이와 배경, 분야에 관계없이 전문 기술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튜터가 될 수 있다. 수업 분야도 무척 다양하다. 디자인, 뷰티, 영상, 외국어, 음악, 재테크는 물론이고, 직장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엑셀, 파워포인트,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 실무역량 수업도 마련돼 있다.

취향 구독으로 일상을 풍요롭게

여가에서 취미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취향이다. 한순간의 몰두에 그치지 않고 일상에서 꾸준히 드러나는 '선택의 방향'이기 때문이다. 내 취향을 고려한 아이템이 곁에 있기만 해도 일상은 한결 풍요로워진다. 선택을 고민하는 시간은 줄고, 그 시간은 여유가 된다.

국내 취향 구독을 대표하는 꾸까^{kukka.kr}는 2014년부터 서울 강남과 여의도를 중심으로 꽃 정기 배송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연인, 어머니, 자녀 그리고 나 자신과 모두를 위한 꽃 구독 등 상황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정기 구독 플랜을 선택하면 맞춤 꽃다발이 배송된다. 구독은 2주와 4주 간격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커피는 취향이 분명히 나타나는 음료다. 좋아하는 커피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싶다면 빈브라더스^{www.beanbrothers.co.kr}의 정기 배송 서비스를 활용해보자. 매달 48시간 안에 로스팅된 신선한 커피를 집에서 받아 즐길 수 있다. 원두와 드립백, 콜드브루 등 다양한 형태로 구매할 수 있고, 원두의 종류도 선택 가능하다. 다양한 커피를 맛보고 싶은 사람은 '월간 빈브라더스'를 선택하면 매달 엄선된 '이달의 원두' 두 가지를 받을 수 있다.

개인의 취향은 독서에서도 크게 나타난다. 때로는 책을 즐겨 읽는 일상 자체가 그 사람의 취향이 된다. 매번 서점이나 인터넷에서 책을 구매할 필요 없이 독서 정기 구독 서비스를 이용해보자. 밀리의 서재^{www.millie.co.kr}는 약 3만 권의 전자책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고, 1회에 최대 30편을 대여할 수 있다. 교보문고^{digital.kyobobook.co.kr}는 월 2권 이상부터 무제한 이용까지 다양한 전자책 대여 옵션을 제공한다.

밀리의 서재는 무제한으로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동차도 정기 구독으로 골라 탄다?!

이제는 자동차도 정기 구독을 할 수 있게 됐다. 매달 일정한 구독료를 내면 등록된 차량은 차종에 관계없이 변경해서 탈 수 있는 서비스다. 취득세와 등록세, 보험료, 관리비 등은 별도로 부담하지 않고, 충분히 그 자동차를 즐길 수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각 자동차 브랜드가 패스포트(포르쉐), 액세스 바이 BMW, 케어 바이 볼보 등의 이름으로 정기 구독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 브랜드 중에는 현대자동차가 최초로 자동차 정기 구독 서비스를 선보였다. 제네시스 스펙트럼은 제네시스 세단 3종을 교체해서 탈 수 있는 서비스다. 현대셀렉션은 이보다 선택의 폭이 넓다. 투싼과 쏘나타, 벨로스터가 대상 차종이다. 두 프로그램 모두 월 2회 자동차를 교체할 수 있다.

프리미엄 소형차 브랜드 미니^{MINI}도 정기구독 서비스 '올 더 타임 MINI'를 선보였다. 회원 등급에 따라 랜덤으로, 혹은 한 달에 한 차종씩 원하는 차량을 선택해 사용해 볼 수 있다.

이제 소유와 공유를 넘어 구독 경제의 시대가 왔다. 한번 구매하면 돌이킬 수 없던 과거와 달리 소비자는 상품과 서비스를 원할 때만 구독하고 원치 않을 때는 구독을 취소한다. 소비자에게는 취향에 따른 선택의 무한 자유가 주어진 셈이다. ■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스펙트럼은 제네시스 세단 3종을 교체해서 탈 수 있는 서비스다.





© Shutterstock

미국에서 패션 디렉터로 일한
닉 우스터는 멋진 패션을
선보이는 시니어다.
스트리트패션 사진으로
SNS 스타가 된 그레이 크러시의
대표적 인물이다.

멋을 아는 시니어에게 패션은 취향의 결집이자 여가를 즐기기 위한 필수
요소다. 패셔너블한 시니어는 ‘그레이 크러시’로 불리며 문화계의 이슈로
떠올랐고 SNS상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최근 패션 흐름
속에 세대를 초월한 ‘나다움’으로 정의되는 실버 패션을 주목해본다.

글. 박세진 패션 칼럼니스트

입고 싶은 것을 멋지게 입기

시니어의 패션 자신감, 그레이 크러시

최근 패션의 가장 큰 흐름은 바로 다양성이다. 그동안 패션은 개성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키 크고, 마르고, 젊고, 근육질에 머리 작고, 다리는 길어서
비율이 좋은 체형, 즉 대부분의 사람은 후천적으로 만들어낼 수조차 없는 모습을 이상
적인 기준으로 움직여왔다.

그리고 이 같은 편견이 미디어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면서 내면의 기준으로까지 자
리 잡았다. 예컨대 살이 찌면 게으르다거나, 트렌드에 뒤지면 촌티 난다거나 하는 식으
로 폄하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런 자의적·타의적 압박 속에서 제 건강을 깎아가며
운동을 하고,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게 현대인의 멋진 모습이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신의 모습 자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마른 게 멋진 게 아니라 건강한 게 멋진 모습이고, 키가 크다고 멋진
게 아니라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멋진 거다. 이런 자기 몸 긍정주의는 패션의 기준을 바
꿔놓고 있다. 그리고 이런 다양성은 인종·민족·성별 등 다방면에 걸쳐 있는데 최근 주
목받고 있는 그레이 크러시, 즉 시니어의 패셔너블함 역시 그런 흐름 중 하나다.

패션은 곧 라이프스타일

그동안 패션이나 트렌드 같은 건 젊은 사람만의 전유물로 여겨왔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에 들든 말든 강요하는 취향의 획일화가 다양성의 물결 속에서 깨지기 시작했다. 그 저 하라는 대로 가만히 있기엔 세상에 멋진 건 많고 시간은 너무 아깝다. 트렌드에 휘둘리던 어린 시절도 지나갔다. 이제 입고 싶은 걸 멋지게 입는 거다.

특히 시니어 패션은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자체가 그저 옷으로만만 들어내는 패션과는 다른 임팩트를 만든다. “패션이 라이프스타일”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이다. 시그니처 스타일이란 그저 유행하는 옷이나 옷에 붙은 장식품이 아니다. 삶의 태도·방식과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을수록 남들과 다른 유니크한 모습이 만들어지는데, 바로 이런 모습을 멋지다고 여기기 시작했다.

물론 예전에도 패션에 관심을 가지고 멋을 내는 중·노년층은 있었지만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이 이전과 달라진 것이다. 바로 SNS 등 인터넷 소통 채널이 발달한 덕분이다. 사용하기 편리하고, 누구나 올릴 수 있으며, 광범위한 사람들이 본다. 패션은 디자이너가 제시하는 걸 넘어 이제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만들어져 디자이너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의 60세 패션 인플루언서 닉 우스터

닉 우스터는 1960년생으로 우리 나이로 올해 예순이 되었다. 원래 광고나 패션 저널리즘, 패션 유통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왔지만 여러 가지 부침과 좌절을 겪었다고 한다. 그러다 50세 즈음 유명한 스트리트 사진작가 스콧 슈만이 찍은 사진 덕분에 일약 세계적인 SNS 스타가 되었다.

사실 언제나 잘 차려입고 다닌 덕분에 컬렉션 기간 동안 스트리트 패션 사진가들에게 자주 사진이 찍혀오기도 했다. 특별한 계기가 필요했을 뿐이다. 지금은 인스타그램에서 70만 명이 넘는 팔로어가 있고, 패션 컨설턴트 및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에도 몇 번 방문한 적이 있다.

닉 우스터는 흔히 패션 리더라고 생각하기엔 패션에서 단점이라 여기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예컨대 백발에 나이도 많은 편이고 키도 168cm로 별로 크지 않다. 머리 크거나 다리 길이, 몸집 등 비율도 그다지 좋다고 할 순 없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냈다.

기본적으로 클래식, 헤리티지풍의 엄격한 스타일의 옷에 반바지나 스니커즈, 백팩 등을 믹스 매치하는 모습을 매우 즐긴다. 즉 클래식한 아이템으로 본래의 나이가 발휘해 낼 기쁨은 살리고, 거기에 트렌디한 아이템을 섞고 믹스 매치함으로써 시선을 흐트리는 식이다. 믹스 매치가 만들어낼 수 있는 혼란스러움은 일관성 있는 컬러의 조합으로 해결한다.

사실 많은 관심과 경험, 연구 끝에 자신에게 매우 특화된 스타일을 확립한 결과이며, 계속 발전해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보고 쉽게 따라 할 타입은 아니다. 하지만 그의 패션에 대한 태도, 열정은 분명 큰 영감을 준다.

특히 패션과 자기 자신을 위해 술과 담배도 금하고, 채식과 생선 위주로 식사하며, 매일 운동하고 성취감을 기르며, 언제나 에너지틱한 상태를 유지하려 애쓴다고 한다. 즉 생활을 절제하며 자신감을 만들고 그걸 패션으로 표출하고 있다. 이런 삶에 대한 엄격한 태도가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기에 인기를 유지해나가고 있는 게 아닐까 싶다.



© Shutterstock

닉 우스터는 크지 않은 키에 모델과는 거리가 먼 비율이지만, 클래식한 스타일에 트렌디한 아이템을 믹스 매치한 패션 사진으로 SNS에서 패셔니스타가 되었다.



여용기 씨는 테일러 숍 '에르디토'의 마스터 테일러다. 멋지게 차려입은 패션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고, 먹방 유튜브를 운영하며 많은 팔로어를 거느린 SNS 스타다.

젊은 감각으로 인기를 끄는 테일러메이드 여용기 씨

여용기 씨는 1953년생의 테일러, 즉 옷 만드는 사람이다. 부산의 닉 우스터라고도 불리면서 시니어 패션을 선도해나가고 있지만, 보다시피 닉 우스터보다 나이가 많다. 거제도에서 태어나 17세에 부산으로 가 양복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고, 22세에 최연소 재단사가 되었으며, 29세에 자신의 매장을 오픈했다. 이렇게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해가며 좋은 평가도 들었지만, 기성복이 시장을 장악해가는 시대 흐름 속에서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

이후 건설업, 주차 요원 등을 해 생계를 이어가며 두 아들을 키웠다고 한다. 이런 실패의 경험은 그에게 시대 흐름을 잘 살펴야 한다는 사업적 교훈을 줬다고 한다. 역경을 이겨내고 다시 테일러 일로 돌아오게 되었고, 몇 년 전부터는 부산에 있는 남성 패션 숍의 마스터 테일러를 맡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유명해진 건 역시 SNS를 통해서다. 인스타그램에서는 5만 명이 넘는 팔로어가 있고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또 유튜브 채널도 있는데, 특이하게도 먹방(음식 먹는 방송)이다. 백발의 노인이 옷을 멋지게 차려입고 먹는다는 게 조금 다르다. 이런 면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여용기 씨 역시 패션 분야를 오랫동안 공부해왔고 테일러다운 특출 난 감각이 있지만, 시작은 자기 자신의 분석이다. 후줄근하게 보이지 않는 살짝 피트한 스타일링을 선호하기 때문인지 코디할 때 체형에 주안점을 둔다고 하는데, 하루에 2시간은 가벼운 등산을 하고 30분은 근력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60대에 늦깎이 모델로 데뷔해 패션으로 소통하는 김칠두 씨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 중 김칠두 씨도 있다. 덩수룩한 수염에 긴 백발을 휘날리며 패션쇼 캣워크에 서기도 하고 광고 모델로 등장하기도 한다. 1955년생인데 가장 특이한 건 '신입' 모델이라는 점이다.

원래 패션도 좋아하고 눈에 띄는 것도 좋아해 국제복장학원에서 의류 디자인을 배운 적도 있다고 하는데, 생계를 위해 꿈을 포기했다. 이후 안 해본 장사가 없다고 말 할 만큼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마지막엔 순댓국집으로 정착을 했다. 한때 가게가 꽤 커지기도 했지만 프랜차이즈에 밀려 결국 27년간의 사업을 접고 말았다. 그렇게 노후를 걱정해야 할 타이밍에 딸의 격려 속에서 예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용기를 내 나서게 되었다.

2018년 초 모델 아카데미에서 시니어 모델 과정을 등록하고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 기존과 다른 특별한 모델을 찾고 있던 패션업계의 니즈와 딱 맞아떨어지며 학원 등록 한 달 만인 3월에 서울 패션위크를 통해 모델 데뷔를 하게 되었다. 이후 다양한 방면으로 활동하는 중이고, 역시 7만이 넘는 팔로어를 거느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은 큰 변화를 겪었지만 어쨌든 60세가 넘어 모델 학원을 등록하는 모험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김칠두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운이 좋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모델 수강 1개월 만에 서울 패션위크처럼 요란하고 거대한 행사에서 데뷔했는데, 떨리기는커녕 환희를 느꼈다는 것도 그런 관심과 열정의 결과가 아닐까.

모두가 이런 식으로 성공할 수는 없겠지만 자신이 열정을 가진 분야에 결국 도전하고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모습은 비슷한 동년배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게도 도전 의식과 영감을 준다. ■



1955년생 신인 모델로 화제를 모은 김칠두 씨는 강렬한 인상과 뛰어난 패션 소화력으로 젊은 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60대 모델이다.

☞ TREND& SNS 등의 발달로 소통하기 쉬운 세상이라고 하지만,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와 신조어 등으로 세대 간 커뮤니케이션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블리제 클럽 매거진>에서는 세대 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긍정적 소통에 도움이 되도록 세대 공감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밀레니얼보다 더 어린 '요즘 젊은 애들', Z세대가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가 청소년기부터 서서히 IT 발전을 경험했다면, Z세대는 유년 시절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유튜브를 보며 성장한 디지털 네이티브다. 타인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방식, 물건의 가치를 매기고 소비하는 방식, 정보를 검색하는 방식이 이전 세대와 뚜렷이 다르기 때문에 '신^新인류'라 부르는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글. 남민희 대학내일20대연구소 책임에디터

트렌드 중심엔 언제나 Z세대

디지털 세상의 신인류 Z세대 탐구



Z세대는 누구인가?

Z세대가 주목받는 것은 이제 그들이 소비와 기업 조직의 중심으로 서서히 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 중반 이후에 태어나 막 대학을 졸업하기 시작한 Z세대는 선배 격인 밀레니얼 세대보다 자신들의 생각을 더 명확하게 제시한다. Z세대는 누구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들에 대해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1995년 이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출생한 세대를 Z세대로 분류하지만, 언제까지를 Z세대의 끝으로 간주할지는 통일된 의견이 없다. UN 통계에 따르면, 올해 말 전 세계 인구의 32%가 Z세대가 되며, 그 수는 밀레니얼 세대(31.5%)를 앞지른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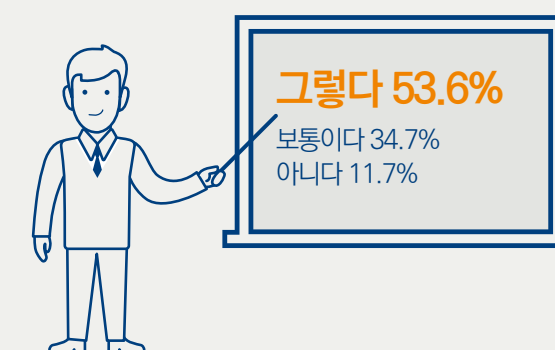
6·25전쟁이 끝난 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학생운동과 민주화 투쟁을 하며 집단을 중시하던 386세대, 개인주의 성향을 지니고 개성을 표출하던 X세대, SNS의 발달로 자신을 쉽게 표현하던 밀레니얼 세대(Y세대)를 거쳐 디지털 네이티브인 Z세대까지 등장했다. 밀레니얼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식 세대, Z세대는 X세대의 자식 세대인 격이다.

특히 Z세대는 개성을 중시하는 X세대의 자식 세대라는 점에서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나'를 기준으로 행동하고 나의 소신을 거리낌 없이 표출하며, 오감^{五感}을 통해 내가 존재함을 느낀다. 또한 자신에게 도움 될 만한 정보를 가진 사람을 따르고, 취향이 맞는 사람들과 어울린다. 이런 Z세대의 특성을 가치관, 사회 인식, 소비, 콘텐츠, 관계의 특징 면에서 다섯 가지 키워드(마이싸이더, 소피커, 실감 세대, 팔로인, 가취관)로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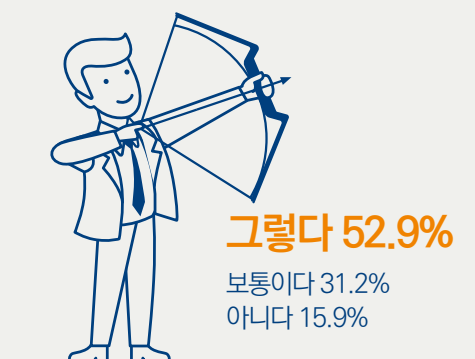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따른다 : 마이싸이더

Z세대는 그 어떤 세대보다도 주체적 삶을 살고 있다. 기성세대처럼 다들 대학에 가니까 본인도 대학에 간다거나, '혼기'를 따져 나이가 차면 결혼을 서두르거나 하지 않는다. 이

사회·타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보다 나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한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 가족·주변인의 의견보다는 나의 만족을 우선으로 고려한다



들은 사회가 ‘보통’과 ‘일반’이라고 구분 지은 가치가 사실은 가장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 더불어 사람의 일에서 지키지 못하면 필멸하는 절대적 가치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1등, 금메달, 대기업이나 높은 연봉 등 사회가 정한 기준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체감하고 있다. 그래서 안정적인 것보다는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 결과보다는 노력을 택한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2019년 1535세대의 라이프스타일 및 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Z세대 56.2%는 타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의 방식보다 나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한다고 답했다. 또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도 가족이나 주변인의 의견보다는 ‘나의 만족’을 우선으로 고려한다(53.8%)고 답해 내가 우선인 ‘마이싸이더(My(나의)+Side(~을 중심으로 한)+er(사람)),(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이를 따르는 사람)’적인 면모를 보였다. Z세대의 태도는 분명하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아도 괜찮다. ‘각자가 행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복하면 충분하다고 여긴다. 이제 보통과 특별, 행복과 불행은 오직 당사자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되었다. 구분이 의미 없다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이들은 그저 가고 싶은 곳으로 간다. 모든 길에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고,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숨 쉬듯 소신을 말하다 : 소피커

‘마이싸이더’인 Z세대는 본인의 소신을 표현하는 것 또한 일상이 되었다. 사실 기성세대에게 ‘소신’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문제였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격언이 진리처럼 통용됐다. 다수의 의견에 반하는 이견을 말하려고 하면 ‘소신 발언’이라는 별칭이 뒤따랐고, 이는 ‘해서는 안 될 말’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Z세대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에 대단한 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 맞을라 조심하라는 걱정 “정 좀 맞으면 어때요?” 하고 반문한다. 모난 돌 운운하는 사람이 오히려 정을 맞을 수

최근 6개월 내 추구하는 가치 · 소신을 위해 한 행동



생활 습관 변화 및 노력 58.7%

제품 · 서비스 구입 및 사용 35.3%
정보 공유 및 주변 추천 29.3%
청와대 청원 및 서명운동에 참여 27.8%
행사 · 이벤트에 참여 24.3%
단체 및 모임에 참여 17.3%
기부 또는 후원 참여 17.3%
SNS 해시태그 운동에 참여 16.7%
기타 0.3%
없음 18.6%

도 있는 분위기다.

그동안 이들은 본인의 주관적 가치에 맞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소비한다는 뜻의 ‘가치 소비’를 실천했다. 주로 소비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온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소신을 표현하는 방법이 한층 다양해졌다. ‘제품/서비스 소비’(32.4%)를 실천했다는 비율보다 ‘생활 습관의 변화’(46.0%)를 선택한 비율이 더 높은 것이다. 청와대 청원이나 서명운동에 참여(29.2%)하고, 주변과 정보를 공유(27.6%)하는 등 소신을 표출하는 방법이 크게 확장되었다. 소비에 국한된 표현인 ‘가치 소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일상에서도 숨 쉬듯 소신을 표현하는 ‘소피커(所(마 소)/小(작을 소)+Speaker(말하는 사람)),(자신의 소신을 거리낌 없이 말하는 사람)’가 된 것이다.

밖에서 놀고 싶은 세대 : 실감 세대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는 오늘날, 단순히 1차원적 감각만을 충족하는 온라인 콘텐츠에 지친 Z세대가 ‘실감(實感)(실제로 체험하는 느낌)’할 수 있는 것에 지갑을 열기 시작했다. 카메라만 덩그러니 놓인 스튜디오에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직접 사진을 찍기도 하고, 많은 세월과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빈티지 소품을 사들이기도 한다. 클릭 한 번이면 무수한 자극이 쏟아지는 시대에서 나의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야 하는 새로운 자극을 고르는 셈이다. 실제로 만지고 느끼고 냄새 맡고 자신의 오감을 충족할 수 있는, 누구도 해보지 못한 낯선 경험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다. 낯선 경험을 통해 낯선 설렘, 즉 ‘낯설렘’을 느낀다.

그리고 이는 디지털 네이티브인 Z세대가 쉽고 편한 온라인 쇼핑을 제치고, 오히려 오프라인 쇼핑을 더 선호하는 현상을 잘 설명해줄 수 있다. Z세대는 팝업 스토어가 생겼다는 소식을 접하는 순간 누구보다 빠르게 찾아가 신제품을 체험해본다. 매장과 달리 점원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마음껏 체험해볼 수 있기 때문에 팝업 스토어에는 늘 Z

나는 독특한 체험이나 경험을 할 수 있으면 기꺼이 시간과 돈을 투자할 의향이 있다



그렇다 50.9%

보통이다 35.2%
아니다 13.9%

세대로 붐빈다. 마찬가지로 보드게임 카페나 방탈출 카페에 가고, 체험형 전시회에 가는 등 여가 시간도 체험 활동으로 채운다. 온라인에서는 즐길 수 없는 ‘현장성의 매력’에 몰두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 Z세대 절반(52.4%)은 독특한 체험이나 경험을 할 수 있다면 기꺼이 시간과 돈을 투자할 것이라고 답했다. 체험이나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통해 역으로 내가 지금 이곳에 존재하고 있음을 실감하는 것이다. 이런 소비 성향을 지닌 Z세대를 ‘실감세대^{實感世代}’, (오감을 만족시키는 현실 같은 감각에 끌리는 세대)라고 부른다.

인플루언서가 Z세대에 미치는 영향 : 팔로잉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인플루언서^{influencer}’는 많은 팔로어를 보유한 SNS 사용자나 1인 방송 진행자를 통칭하는 용어다. Z세대는 톱스타보다 이 인플루언서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다. Z세대가 가장 많이 팔로잉·구독하는 인플루언서 채널은 단연 유튜브였다. 또 Z세대는 팔로잉·구독 중인 인플루언서를 신뢰한다고 말한다.

Z세대가 인플루언서를 따르는 이유는 광고 때문이다. 스마트폰과 SNS가 대중화되면서 밀레니얼 세대는 손가락 터치만으로도 손쉽게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정보가 쏟아지다 보니 “어떻게 정보를 얻을 것인가?”에서 이제는 “정보를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더구나 수많은 정보에 교묘히 섞인 광고로 인해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어떻게 정확하게 얻을 수 있을까?”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Z세대는 검색된 정보를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주는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굳이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일상을 사는 일반인, 개인의 취향과 경험을 기반으로 전문성 있고 진정성 있는 정보를 주는 사람을 믿고 팔로잉한다.

팔로잉·구독 중인
인플루언서 신뢰도

신뢰한다 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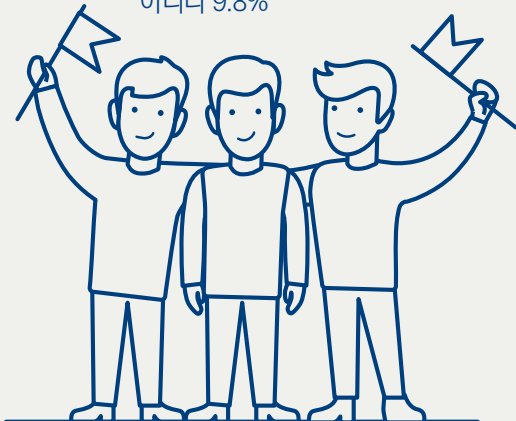
보통이다 45.2%
아니다 2.9%



나는 나와 취향·취미가 비슷하다면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쉽게 교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57.9%

보통이다 32.3%
아니다 9.8%



Z세대 본인이 팔로잉·구독 중인 인플루언서를 믿는 가장 큰 이유도 “나와 취향이 나 가치관이 비슷해서”다. 개인의 취향과 경험을 기반으로 진정성 있는 정보를 주는 사람을 따르고, 또 찾아 나서기까지 하는 Z세대는 ‘팔로잉^{Follow(따르다)+인(사람)}’이다.

취향으로 모이되 관계는 가볍게! : 가취관

향우회, 전우회, 동창회 등 과거 세대는 ‘OO회’의 연속이었다. 졸업을 해도, 전역을 해도, 고향을 떠나도 여전히 그 집단에 그림자가 귀속되었다. 사회경제적 관계로 묶인 집단은 물리적 거리를 초월해 존재해왔다. 하지만 오늘날 Z세대에게 이런 끈끈한 연대감을 더이상 기대할 수 없다. Z세대는 학연이나 지연의 관계를 불편하게 생각한다. 왜 굳이 취향도 맞지 않는 사람들과 불편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Z세대가 물리적 접촉보다 온라인 접촉에 더욱 익숙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놀이터에서 즐기는 포레와의 로봇 놀이보다 유튜브 속 지니 누나의 장난감 리뷰가 더 익숙한 세대다. 자연스럽게 ‘사회경제 공동체’란 단어는 개념 자체가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발만 살짝 담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미련 없이 발을 뺄 수 있는 관계를 원한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보다 비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에 나가는 것을 선호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런 가벼운 관계일지라도 취향에 맞아야 한다. 취향이 맞아야 말이 통하기 때문이다. 설문조사 결과 Z세대는 취향이 서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12.8%)보다 비슷한 취향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87.2%)을 훨씬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취향으로 모였지만 끈적거리는 건 사절인 Z세대는 취향이 비슷하면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쉽게 교류할 수 있다(63.8%)고도 말한다. 취향으로 모이되 관계는 가볍게! 오늘날 Z세대의 관계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가취관(가벼운+취향 위주의+관계)’이다.

Z세대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기성세대는 Z세대의 가치관이나 사회 인식, 소비 스타일 등이 이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작은 움직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Z세대가 반응하는 것이 지금은 작아 보일지라도 결국 연령과 세대를 초월해 대부분의 사람이 궁금해하고 즐기는 것으로 확산되어갈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Z세대가 소비와 기업 조직의 중심으로 서서히 진출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Z세대의 내밀한 심리를 살펴 이들이 콘텐츠와 상품을 소비하는 관점이 바뀌거나 유통하는 방식이 바뀌는 순간과 그 이유를 추적해야 한다. 변화의 결과보다 원인과 이유를 파악해야만 트렌드의 변화 방향을 예측해볼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이해는 미래의 비즈니스 환경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

수도권에 오피스텔을 여럿 보유 중인 A씨는 요즘 분양받아둔 오피스텔 계약을 해지하느라 바쁘다. 빌딩 투자에 폭 빠졌기 때문이다. 임대료를 두고 임차인과 갈등도 없고, 목돈은 오히려 적게 들었다.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인 리츠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글. 전형진, 안혜원

여유로운 삶을 위한 리츠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 리츠^{REITs} 알아보기



리츠란 무엇인가?

리츠^{REITs}는 는 소액 투자자들에게서 자금을 모아 전문가 그룹이 부동산 시장에 투자한 뒤 여기서 발생한 임대 소득이나 매매 차익 등의 수익을 배당으로 돌려주는 간접투자 상품 가운데 하나다. 개인도 공모에 참여하거나 주식을 매입해 대형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상장 리츠에 투자하는 경우 최소 예치 금액 등의 제약도 없다.

리츠는 부동산 투자 수익을 나눠주는 구조라는 점에서 부동산 펀드와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엄연히 다르다. 보유할 수 있는 자산의 수부터 차이가 있다. 부동산 펀드는 하나의 펀드에 하나의 자산(부동산)만 보유할 수 있다. 반면 리츠는 여러 개의 자산을 가질 수 있다. 환금성 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부동산 펀드는 주로 3~5년 만기의 폐쇄형상품인데다 만기까지 환매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상장 리츠에 투자할 경우 만기 없이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리츠가 주목받는 이유

해외에는 이미 리츠가 활성화돼 있다. 38개 국가가 리츠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미국은 1960년부터 리츠를 시작했다. 미국리츠협회^{NAREIT}에 지난해 말 기준 상장 리츠 시가 총액은 1307조원을 넘어섰다. 호주는 143조원(호주증권거래소^{ASX}), 싱가포르는 74조원(싱가포르증권거래소^{SGX}) 규모다. 일본도 138조원(일본부동산증권화협회^{ARES})에 육박한다. 2000년 2개가 전부였던 상장 리츠가 62개로 늘었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 집중 육성한 결과다. 내년에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데다 최근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리츠 또한 대표적 투자 상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 리츠 시장의 규모도 꾸준히 커지는 중이다. 국토교통부 리츠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리츠는 올 상반기 기준 229개로 2015년(125개)과 비교해 3년 만에 82% 급증했다. 자산 규모는 같은 기간 26조원 늘어 44조원 규모까지 불었다. 다만 상장 리츠의 시가총액은 1조원 남짓으로 아직 성장 초기 단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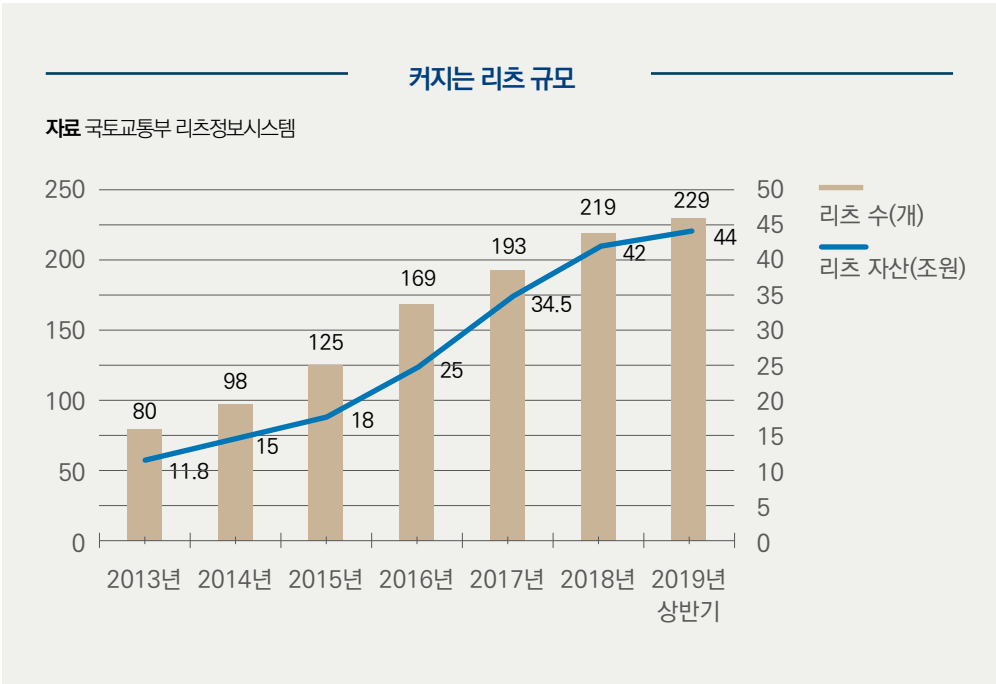
과거 리츠는 대부분이 사모투자 형태였다. 이 때문에 고액 자산가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주식시장에 대형 상장 리츠들이 나왔다. 일반 투자자들에게겐 문턱이 낮아진 셈이다.

현재 상장 리츠의 주당 가격은 대부분 3,000~6,000원 수준이다. 가격이 저렴해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이 쉽다. 개인의 비중도 늘고 있다. 번거로운 임대 관리를 직접 하느니 전문 운용사에 자금을 맡겨놓고 편하게 배당을 받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위탁 관리 리츠의 경우 결산 때마다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하고 있어 수익이 비교적 안정적인 것도 장점이다. 또한 최근 미국·중국 무역 분쟁 등으로 증시 변동성은 커졌지만, 리츠는 오히려 주가 흐름이 원활한 편이다.

생애 주기별 투자 전략을 짤 때도 리츠는 노후준비를 위해 필요한 투자처로 평가된다. 배당수익을 추구하면서 필요할 때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리츠마다 배당 시기

가 다르기 때문에 1~2개월 간격으로 배당 받는 형태의 현금 흐름을 설계할 수도 있다.

리츠가 바구니에 담은 부동산은 다양하다. 리츠 재간접 펀드를 통해 해외 부동산 투자도 가능하다. 미국 리츠에 재간접투자하는 ‘미래에셋TIGER MSCI US 리츠부동산’ 상장지수펀드^{ETF}가 대표적이다. 또한 대형 오피스와 백화점부터 호텔, 영화관, 임대주택 등도 있다. 상장 리츠인 ‘신한알파리츠’는 오피스리츠다. 또 다른 상장 리츠인 ‘이리츠코크렙’은 리테일리츠에 속한다. 여러 상장 리츠와 부동산·인프라 펀드를 모은 ETF도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내놓은 ‘미래에셋TIGER 부동산인프라고배당’ ETF다. ‘신한알파리츠’와 ‘이리츠코크렙’을 비롯해 국내 첫 부동산 관련 ETF다. 한꺼번에 여러 리츠와 펀드에 재간접 투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리츠 ETF의 장점이다.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계좌에 넣을 수도 있다. 국내 리츠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주택 관련 규제는 갈수록 강화하는 반면 리츠 활성화 대책은 꾸준히 내놓고 있다. 특히 상장 리츠를 중심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운용사들 입장에서는 상장 리츠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투자에 필요한 건 옥석 가리기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다. 공실은 리츠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다. 오피스 리츠의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이 비교적 짧은 데다 기업 규모에 따라 한꺼번에 대규모 공실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부담이 있다. 주변에 오피스 공급이 많다면 공실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여의도 고층 빌딩도 4~5개층씩 수개월 동안 텅텅 빌 수 있는 게 오피스 시장이다.

리테일 리츠도 변수가 많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특히 온라인 직배송 서비스 규모가 불어날수록 백화점이나 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받는 위협은 커진다. 점포

나 업종의 다변화도 중요하다. ‘홈플러스리츠’가 상장을 철회한 것은 단일 점포만 자산으로 담고 있어 이 같은 위험부담이 부각된 탓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러 업종의 점포가 혼합된 상태이면서 입지가 뛰어난 지역의 건물을 자산으로 담고 있는 리츠를 눈여겨봐야 한다.

세금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국내 상장 리츠의 매매차익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비과세다. 다만 리츠를 통해 받는 배당 수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된다.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사업이나 근로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한 뒤 총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배당 규모를 미리 살필 필요가 있다. ■

주요국 상장 리츠 현황(2018년 말 기준)				
구분	미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도입 연도(연)	1960	1971	2000	2002
상장 리츠 수(개)	225	44	62	36
시가총액(조원)	1307	143	138	74
GDP 대비(%)	6.2	9.9	2.6	21
주식시장 내 비중	2.9	8.1	2.5	16.8

자료 NAREIT, ARES, 한국리츠협회, SGX, ASX

상품명	총보수
계열사 미래에셋TIGER MSCI US 리츠부동산 상장지수투자신탁(파생형)(합성 H)(182480)	총보수 연 0.25% (운용: 0.15%, 지정 참가: 0.045%, 신탁: 0.025%, 일반사무: 0.03%)
계열사 미래에셋TIGER 부동산인프라고배당혼합자산 상장지수투자신탁(재간접형)(329200)	총보수 연 0.29% (운용: 0.23%, 지정참가: 0.02%, 신탁:0.02%, 사무관리: 0.02%) *추가비용(재간접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추정치는 약 0.46%로 추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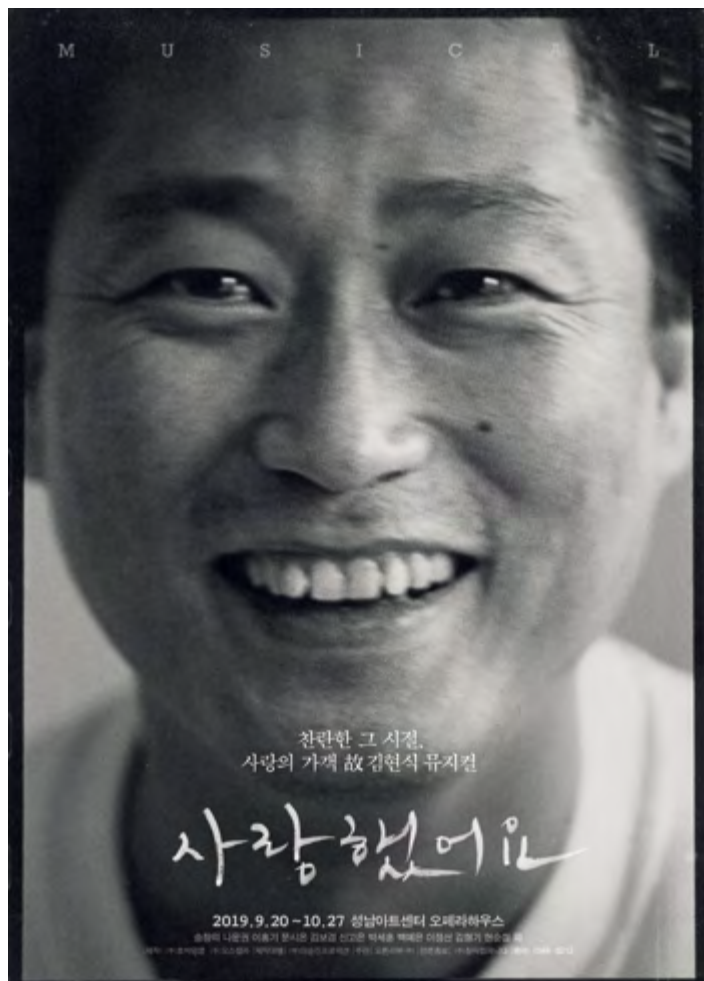
● 당사는 이 금융 투자 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 투자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 금융 투자 상품은 투자 결과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 금융 투자 상품은 부동산 경기 변화에 따라 수익이 변동할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ETF)이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잃을 수 있으며, 특히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외화 자산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 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 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 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수, 수수료 외에 증권 거래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내주식 거래 수수료는 0.014%~0.49%(매체별 상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해외주식 거래 수수료는 온라인 0.25%~0.45%, 오프라인 0.5%~1%(국가별 거래 수수료 상이함,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타지에서 만난 운명과도 같은 사랑 그리고 이별. 그 감정을 짙 짙 눌러 담아 쓴 노랫말. 뮤지컬 <사랑했어요>의 줄거리는 묘하게 김현식의 노래들과 닮았다. 사랑과 아픔 그리고 그리움, 김현식의 노래 세계를 관통하는 요소를 모두 모아 무대 위에 버무린 창작 뮤지컬 <사랑했어요>가 우리의 마음을 건드린다.

글. 이종기 에디터

노래로 엮은 한 남자의 사랑

뮤지컬 <사랑했어요>



‘사랑의 가객’ 뮤지컬로 돌아오다

아직까지도 김현식을 그리는 이가 적지 않다. 그 때문인지 김현식의 노래는 여러 장르에서 다양하게 변주되어왔다. 한 시대 음악 역사에 획을 그은 음유시인이자 한국의 언더그라운드 음악을 주류로 끌어올린 입지전적 인물 김현식. 그의 뜨거운 노래들이 이제 뮤지컬 무대에 오르는 것은 어찌 보면 뒤늦은 감도 있다.

뮤지컬 <사랑했어요>는 동명의 히트곡 ‘사랑했어요’를 비롯해 ‘비처럼 음악처럼’, ‘당신의 모습’,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추억 만들기’,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김현식만의 독특한 음색과 특유의 진한 멜로디가 특징이다. 그리고 김현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깊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가사는 김현식 노래들의 트레이드마크나 다름없다. 김현식 노래들의 이러한 특징은 뮤지컬 무대에도 고스란히 옮겨올 예정

이다. 뛰어난 가창력을 지닌 배우들의 열띤 무대는 물론,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한 스토리와 김현식의 가사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멋진 조합도 경험해볼 수 있다.

뮤지컬은 한 남자의 음악과 사랑 이야기를 펼쳐낸다. 자신만의 길을 추구하며 오랫동안 음악 활동을 이어온 싱어송라이터 이준혁. 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음악적 신념 때문에 누구와도 친해지지 못하고 늘 다툼과 반목만 이어왔다. 세상에 홀로 떨어진 외톨이 같은 준혁에게 유일한 친구는 그를 친형처럼 따르고 좋아하는 절친한 후배 윤기철이 전부다. 기철 또한 음악을 하는 후배로 음악적 재능은 물론 부족함 없는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는 든든한 집안 배경까지 모든 것을 다 가진 ‘엄친아’ 같은 인물이다. 따라서 늘 우울하고 어두운 준혁에 비해 언제나 밝고 명랑하다.

그러던 어느 날, 기철은 준혁에게 음악 유학을 권한다. 한국이라는 작은 세상에 갇혀 있지 말고, 보다 넓은 무대에서 준혁만의 음악을 펼쳐 보이라 권유하는 기철. 준혁은 잠시 고민하지만, 기철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그렇게 훌쩍 떠난 음악 유학길. 빈 음악학교에서 준혁은 먼저 이곳에 도착해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김은주를 만난다. 음악만이 세상의 전부라 여긴 준혁에게 은주는 자신이 지금까지 구축해온 음악적 세계마저 무너뜨릴 만한 인물이 된다.

송창의, 나윤권이 부르는 김현식이 궁금하다면?

주연에는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고수하는 싱어송라이터 이준혁 역에 송창의와 나윤권이 캐스팅되어 큰 화제를 모았다. 2017년 뮤지컬 <레베카> 이후 2년 만에 무대로 돌아온 송창의는 고집이 세고 신경질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속 마음은 여린 이준혁이라는 복잡한 캐릭터를 잘 소화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믿고 듣는 보

컬 나윤권은 이번 무대가 첫 뮤지컬 도전이다. 감성 발라드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가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김현식의 노래를 어떻게 표현할지 궁금증이 있다.

준혁의 절친한 후배인 윤기철 역은 이흥기와 문시온이 열연한다. 2016년 뮤지컬 <그날들>에서 뛰어난 가창력과 연기력으로 뮤지컬계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이흥기는 자신의 두 번째 뮤지컬 작품으로 <사랑했어요>를 선택했다. 주목받는 신인 밴드 르씨엘의 보컬 겸 기타리스트 문시온은 허스키한 음색과 로커 특유의 파워풀한 발성으로 뛰어난 무대 장악력을 기대해봄 직하다.

눈과 귀 모두가 즐거운 완벽한 작품

김현식의 노래를 듣고 자란 세대는 물론 최근 뮤지컬을 접하는 젊은 세대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뮤지컬 <사랑했어요>. 김현식의 노래가 음악과 서사를 잇고, 세대와 세대를 잇는 아름다운 만남을 확인하고 싶다면 뮤지컬 <사랑했어요>를 주목해보자. ■



뮤지컬 <사랑했어요> (만 7세 이상 관람가)

- 공연 기간 2019년 9월 20일(금)~10월 27일(일)
- 공연 장소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 관람 일자 10월 10일(목)
- 러닝 타임 140분(인터미션 20분 포함)
- 문의 1544-1555

● <오블리제 클럽 매거진> 독자 여러분께 추첨을 통해 뮤지컬 <사랑했어요> 관람권(1인 2매)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응모 방법은 85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미래에셋대우와 함께한 소중한 추억을 보내주세요

〈오블리제 클럽 매거진〉에서는 지난 여름호에 이어 고객님과
미래에셋대우가 함께한 소중한 추억을 담은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미래에셋대우를 만난 **특별한 사연, 성공적인 투자 사례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한 스토리, 관리자와의 특별한 추억** 등 고객님의
기억 속에 아름답게 자리한 미래에셋대우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선정되신 분들께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 **응모 대상** 미래에셋대우 고객이라면 누구나

◎ **응모 주제** ① 미래에셋대우를 만난 특별한 사연
② 성공적인 투자 사례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한 스토리
③ 관리자와의 특별한 추억 등

◎ **작성 방법** 산문 수기 형식으로 한글 또는 MS-WORD 2매 이내 분량
(폰트: 맑은 고딕, 글자 크기: 12포인트)

◎ **응모 기간** 2019년 9월 5일(목)~10월 6일(일)

* 응모 기간 내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1인 1작품 응모를 원칙으로 하며, 다작 응모 시 1작품만 임의 선정해 심사합니다.

◎ **응모 방법** ① 응모 사연과 작품 파일을 obligeclub@miraeasset.com으로 이메일 발송
② 이메일 발송 시 **고객명, 연락처, 당사 거래 계좌번호** 기재 필수!
* 미기재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당선 선물** 우수작 정관장 홍삼정 듀얼 세트 10명
가 작 록시땅 시트러스 버베나 샴푸 250ml 10명

◎ **당선 발표** 2019년 10월 16일(수) 예정

* 당선 고객에 한해 이메일로 개별 안내해드릴 예정이며, 당선작과 고객명은 다음 호
〈오블리제 클럽 매거진〉에 게재됩니다. 게재 시 지면에 따라 일부 편집될 수 있습니다.

◎ **문의 사항** 미래에셋대우 고객센터(1588-6800)

제14기 살롱 아카데미 ‘김효근 교수의 AHA! OPERA!’ 개최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6월,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최상위 VIP 고객을 대상으로 프라이빗 문화·예술 클래스 ‘살롱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AHA! OPERA!’라는 주제로 김효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진행한 이번 강연은 1597년 이탈리아 예술가와 귀족들 사이에서 시작된 오페라가 어떻게 바로크 시대를 거쳐 현재 우리에게 올 수 있었는지 눈앞에서 감상하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6월부터 7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열린 이번 살롱 아카데미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오페라, 비제의 <카르멘(Carmen)>을 시작으로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La Traviata)>, 도니제티의 <사랑의 묘약 L'Elisir d'Amore>, 푸치니의 <라 보엠(La Boheme)>과 같은 대작의 전체적인 스토리 설명과 해설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특히 수동적으로 강연을 듣는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참여한 고객이 배역을 맡아 주요 장면을 직접 연기해보고 현재 활동하는 성악가의 공연을 눈앞에서 감상하는 강연 방식은 참여한 고객들의 기립 박수 등으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김효근 교수는 “오페라는 대부분 이탈리아어·독일어·프랑스어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청중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공연이지만, 접하기 시작하면 다양한 매력을 지닌 종합예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며, “전체적인 스토리와 대사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통해 오페라를 더욱 친숙하게 느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살롱 아카데미에 참석한 고객은 “참여한 분들과 함께 대본을 읽으며 서로 교감하고, 실제 성악가의 무대를 보는 것은 그 어디서도 할 수 없던 특별한 경험이었다”며, “앞으로 오페라 공연을 볼 때마다 이번 강연이 생각날 만큼 소중한 기억이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는 2012년부터 해마다 최상위 VIP인 오블리제 클럽 고객을 대상으로 깊이 있는 문화·예술 강좌인 살롱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매해 다채롭고 깊이 있는 구성으로 고객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다. ■

<오블리제 클럽 매거진> 여름호에 대한 고객님의 고견을 듣고자 ‘2019 오블리제 클럽 매거진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보내주신 따뜻하고 애정 어린 조언과 함께 가을호에 반영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족의 가치라는 주제에 맞춰 새로운 가족관에 대한 이야기부터 자녀 교육, 트렌디한 가족 선물까지... 가족에 대한 의미 있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 좋았습니다.”

“콘텐츠를 섹션별로 구분해 주제와 연결하는 구성이 좋았습니다. 항상 필요한 정보를 줄 뿐만 아니라 따뜻함도 함께 느낄 수 있는 매거진이라 매호 기다려집니다.”

“최근 핫한 클라우드 트렌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산 관리에 도움 되는 내용을 소개해주면 유용하겠습니다.”

여름호 ‘클라우드’에 이어, 가을호에서는 부동산 간접투자상품 ‘리츠(REITs)’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장기적인 성장성을 주목받고 있는 리츠에 대한 정의,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점 등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오블리제 클럽 매거진>은 고객님의 의견을 보다 가까이에서 듣고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매호마다 ‘매거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앞으로도 매거진이 더욱 가치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오블리제 클럽 매거진>
‘가을호’ 만족도 조사

고객님 안녕하세요. 매거진에 보내주시는 한결같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가을호’에서는 어떤 코너가 가장 재미있고 유익하셨나요? 또 앞으로 <오블리제 클럽 매거진>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오블리제 클럽 매거진>이 더욱 가치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고객님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보다 가까이에서 듣고 매거진 제작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응모 대상 미래에셋대우 고객이라면 누구나
- ◎ 응모 기간 2019년 9월 5일(목)~10월 6일(일)
* 응모 기간 내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 참여 방법 아래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설문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당첨 선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총 50명 / 1인 1매 발송)
- ◎ 당첨 발표 2019년 10월 14일(월) 예정
* 당첨 고객에 한하여 문자메시지로 쿠폰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 ◎ 문의 사항 미래에셋대우 고객센터(1588-6800)



QR코드 연결 방법

스마트폰 네이버 검색창에서 카메라 모양 클릭

→ QR/바코드 선택 후 위 QR코드 촬영

QR코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방법

아이폰 → 앱스토어 → <QR코드> 검색

안드로이드 → Play스토어 → <QR코드> 검색

노블리스 오블리제

미래에셋대우 희망체인봉사단 글로벌에너지나눔 라이팅칠드런 캠페인

미래에셋대우는 에너지 빈곤국 아이들을 위해 라이팅칠드런(Lighting Children)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한 국가의 어린이에게 후원자가 직접 조립한 태양광 랜턴을 보내주는 친환경 에너지 나눔 캠페인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불빛이 어떤 곳에서는 너무나 부족해 실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캠페인에 뜻을 함께하기 위해 미래에셋대우 준법 감시 부문, 리서치센터 희망체인봉사단이 한곳에 모였습니다. 밀알복지재단에서 준비한 영상을 통해 본 지구의 밤은 상상 이상으로 어두웠습니다. 세계 70억 인구 중에 전기 없이 캄캄한 밤을 보내는 사람이 약 17억 명이고, 그 17억명의 대부분이 남반구에 살고 있으며, 아프리카 지역의 70%에 이르는 사람들이 전기가 없는 캄캄한 밤을 보냅니다. 특히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직도 등유 램프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화재나 건강, 지구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에너지 빈곤국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들으며 희망체인봉사단의 태양광 랜턴 만들기 '핸즈온' 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밝은 빛이 되어줄 태양광 랜턴이었기에 임직원들은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비록 작은 불빛이지만 에너지 빈곤국의 아이들이 책도 읽고, 밤길에도 넘어지지 않고 생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연스레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 태양광 랜턴이 열악한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낮에 일하고 밤에 학업을 이어나가는 어린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비록 점심시간을 이용한 짧은 봉사 활동이었지만, 간단한 재능 기부를 통해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선물해줄 수 있어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반에서 풀등을 하던 아이가 이 태양광 랜턴을 선물 받고 5등을 했다는 이야기를 떠올리며 오늘 내가 만든 랜턴이 한 아이의 인생에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불빛이 없어 생활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오늘 만든 태양광 랜턴을 통해 보다 편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

☺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5월 희망체인리더 1기 발대식을 갖고 임직원이 직접 기획한 10개의 사회 공헌 대표 모델을 선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8년 8월부터 유연하고 혁신적인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연 관람 문자 이벤트

퀴즈 풀고 뮤지컬 <사랑했어요> 공연 관람 이벤트에 응모하세요

뮤지컬 관람 신청을 원하는 분은 아래 퀴즈의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선정된 10분께 뮤지컬 <사랑했어요> 관람 기회를 드립니다.

QUIZ

절대적인 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강원도 홍천의 이 곳,
푸른 하늘, 울창한 숲, 여유롭고 건강한 삶이 있는 곳.
'지혜로운 사람들이 사는 곳'의 뜻을 가진 이 곳은 어디일까요?

HINT 매거진 39page를 참고하세요.

정답 □□□□□
(□□□□□에 들어갈 다섯 글자를 보내주세요.)



- 관람 일시 2019년 10월 10일(목)
- 공연 장소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 출연진 송창의, 나윤권, 이흥기, 문시온 등
- 러닝타임 140분
- 공연 소개 '사랑했어요', '비처럼 음악처럼', '당신의 모습',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독보적인 음악 세계를 보여준 故 김현식의 주옥같은 히트곡을 엮은 주크박스 뮤지컬. 주인공인 싱어송라이터 준혁, 그의 후배 기철, 사랑에 당찬 여자 은주의 애절한 사랑과 그리움을 이야기하며 진한 감동을 전한다.
- 공연 문의 1544-1555

- ◎ 응모 대상 미래에셋대우 고객이라면 누구나
- ◎ 응모 기간 2019년 9월 5일(목)~9월 29일(일)
* 응모 기간 내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 당첨 선물 뮤지컬 <사랑했어요> 관람권 R석(10명, 1인 2매)
- ◎ 응모 방법 '퀴즈 정답'과 '고객명', '미래에셋대우 계좌번호' 입력 후 013-3366-2244로 문자메시지(SMS) 발송
* 별도의 정보 이용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띄어쓰기 포함 40자 초과 시 시스템상 접수되지 않습니다.
* 상기 번호는 SMS 응모 전용 번호이므로 통화가 불가합니다.
* 본 관람권은 환불이 불가하므로 상기 관람 일시에 참석 가능한 분만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명 김미래

+ 퀴즈 정답 □□□□□

- ◎ 당첨 발표 2019년 10월 2일(수) 예정
* 당첨 고객에 한해 문자메시지로 개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 ◎ 문의 사항 미래에셋대우 고객센터(1588-6800)

유의 사항

- 뮤지컬 관람권 이벤트 응모 시 전송된 고객님의 휴대폰 번호가 당사의 고객 정보와 상이할 경우 추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당첨 발표일 및 경품은 당사 또는 제작사 측의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타 동등한 경품 등으로 대체해 제공합니다.
- 고객님의제 제공하신 개인 정보는 본 이벤트의 응모, 경품 제공 등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동 목적 이행 완료 시까지 이용·보관합니다.
- 상기 관람 일시와 출연진은 제작사 측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미래에셋대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문의 미래에셋대우 고객센터(1588-6800)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자산 배분 모델 포트폴리오



OBLIGE
CLUB

AUTUMN 2019

GLOBAL ASSET ALLOCATION MODEL PORTFOLIOS

미국·중국의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갈등의 수위 조절이 있겠지만, 미국과 중국 간에 예전과 같은 글로벌 협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분쟁도 미국·중국의 갈등 국면을 빌려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시도다. 미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의 분쟁으로 '패러다임의 전환'급의 글로벌 자산 배분 2.0이 시급한 시점이다.

다양한 해외 자산 확보에 속도감 붙여야



글
이재훈 미래에셋대우 고객글로벌투자전략팀장
jaehun.lee@miraeeasset.com

트럼프의 정치 논리와 중국의 속내

미국·중국의 무역 분쟁이 햇수로 2년을 넘어섰지만, 그 간극은 오히려 벌어졌다. 양국 실무자가 올해 5월과 7월 두 번 만났지만, 조그마한 합의도 도출해 내지 못했다. 이는 갈등의 장기화를 시사한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굴기를 저지해 핵심 산업의 밸류 체인을 미국 중심으로 공고히 만들겠다는 입장이고, 중국은 과거 80년대 일본처럼 쉽게 당하기를 거부하며 항전 중이기 때문이다. 물론 트럼프도 대 중국 경제를 너무 과격하게 할 경우 주가와 경기 급락으로 내년 재선이 힘들 것이라는 점은 계산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적당하게 수위를 조절하고, 동시에 연준도 압박해 시장을 유지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보다 선거나 시장 압박이 덜한 시진핑은 이 같은 트럼프의 입장을 역으로 이용해(협상

을 미루면서) 최대한 트럼프로부터 양보를 얻어낼 궁리를 하는 듯하다. 향후 어느 시점에서 중국이 트럼프의 요구를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이전과 같은 공생 관계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을 중국도 이제는 잘 알고 있다. 예전과 같은 글로벌 협업은 어려울 것으로 봐야 한다.

글로벌 분업의 효율 저하, 한국이 가장 큰 타격

일본의 경제 보복도 국제 분업의 균열과 맥이 닿아 있다. 한국의 산업은 일본에서 기초 소재를 수입해 중간재와 완성품을 만들어 중국과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인데 첫 단계가 막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버티는 뒷배는 든든한 내수에 있는데, 일본이 공급을 중단하면 중국 수요의 의미는 반감될 수 있다.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이 한일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

입하지 않는 이유로 의심해볼 대목이다. 미국의 의도를 제거한 순수 일본 입장에서 과거 20년의 기술 격차를 보였던 한국이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일본을 추월했으니 미국·중국의 갈등 국면을 빌려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것이다. 지난 20년간 글로벌 분업 체계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본 나라는 중국과 한국이다. 미국과 일본은 이 관계를 끊거나 예전으로 되돌리고 싶어 한다. 중국은 막대한 내수가 있기 때문에 수출이 줄어도 태세 전환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내수가 취약한 한국은 수출이 막히면 난감하다. 올 한 해 전 세계 자산 중 가장 부진한 성적을 내고도 밸류에이션이 내려오지 못하고 환율이 널뛰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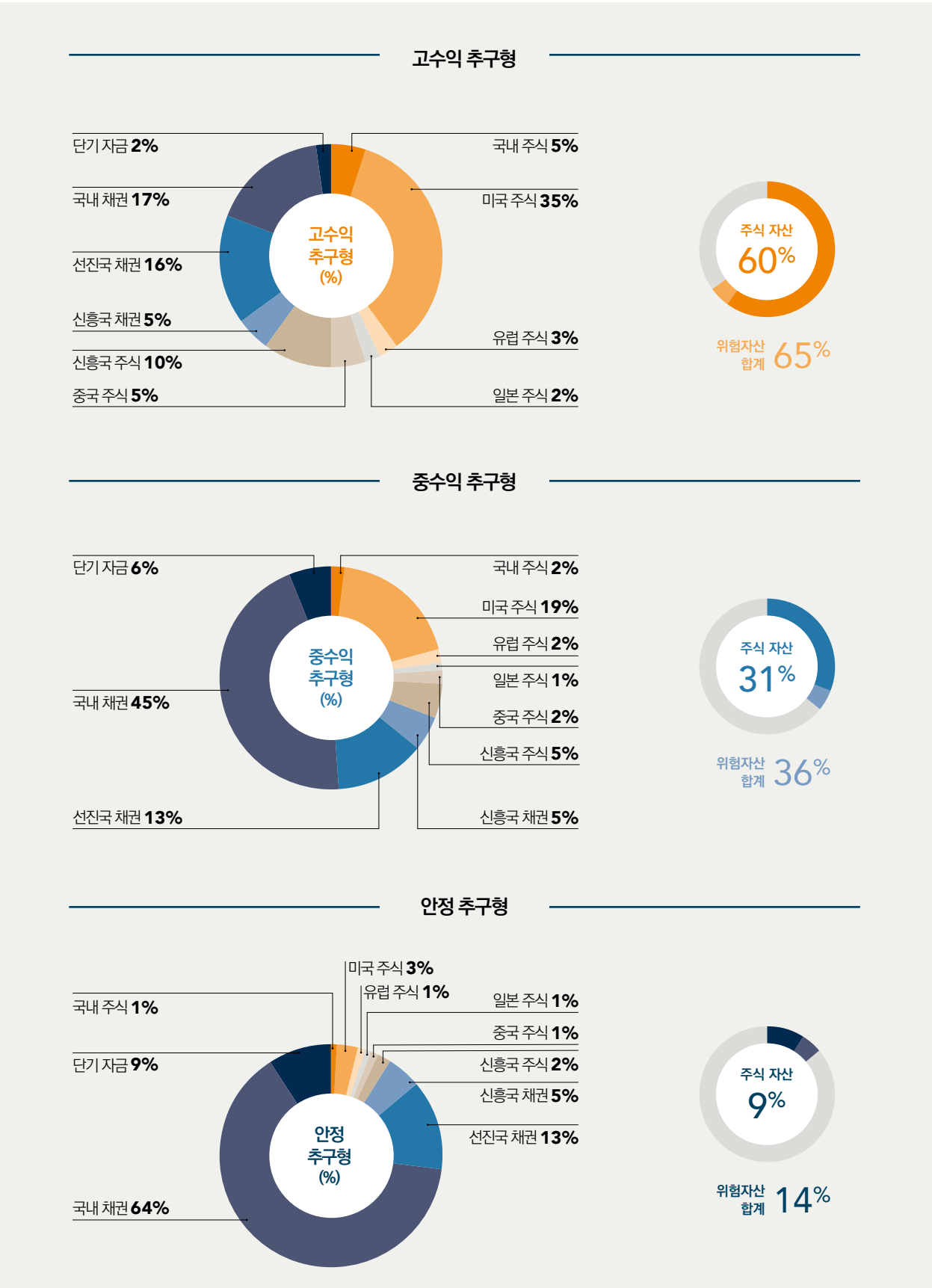
글로벌 자산 배분 2.0 시급하다

이렇듯 미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의 분쟁은 글로벌

자산 배분 측면에서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 만큼 엄중한 사건이다. 글로벌 자산 배분 2.0이 시급하다.

첫째, 국내 자산 비중을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 중국은 과거 도전자에 비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해외 우량 주식을 장기간 보유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만 이제 막 개화했고, 미국은 그 패권을 중국에 넘기지 않으려고 무역 분쟁을 일으켰다. 셋째, 주식 이외의 해외 이종 자산을 적극적으로 섞어야 한다. G2 경제를 담보로 한 패권 전쟁은 극적인 타격과 경기 침체의 이중적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를 대비해 달러 표시 선진국 채권이나 금과 같은 안전 자산을 추가로 장착해둘 필요가 있다. ■

※ 위험 자산 : 주식, 원자재, 글로벌 리츠, 하이일드 채권, 신흥국 채권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

추천상품 중 미래에셋스마트알파펀드(채권혼합)는 만기 1년 수준의 국공채 및 정기에금 투자와 주식 페어트레이딩을 메인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모주 전략 또한 병행하고 있으며, 펀드 성과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주식형펀드의 대안으로 추천해볼 만한 상품으로 판단됩니다.

7월말 연준이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인하했고, 양적긴축(QT)도 종료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성 인하(Insurance cut)일 뿐 장기 인하 사이클의 시작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당장 연내 추가 인하 기대가 줄면서 유동성 장세가 일단락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주식시장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기존 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웠던 미중무역분쟁, 글로벌경기둔화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분산투자, 대체투자, 글로벌채권 투자 유형의 기존 추천 상품을 유지합니다.

◎ 추천 상품

자산군	상품명
해외 주식	계열사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주식)
	슈로더글로벌타겟리턴펀드(주식혼합-재간접)
대체투자	계열사 미래에셋스마트헤지펀드셀렉션펀드(사모투자재간접)
	지수형 스텝다운 ELS(저낙인)
	신한BNPPH20글로벌본드펀드(USD)(채권혼합-파생재간접)
	블랙록다이나믹하이인컴펀드(주식혼합-재간접)
	계열사 미래에셋스마트알파펀드(채권혼합)
채권	흥국멀티플레이30공모주펀드(채권혼합)
	계열사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펀드(채권)

미래에셋대우는 글로벌 우량 주식에 대한 투자를 위해 글로벌 추천 포트폴리오를 제시 및 운용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에 대한 우려 속에 한국 시장으로 제한된 주식 포트폴리오가 저수익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글로벌 우량 주식에 대한 투자는 투자 기회를 넓히고 보다 나은 수익을 창출하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GBK 추천 포트폴리오



글
이승우 미래에셋대우 글로벌주식컨설팅팀 수석매니저
seungwoo.lee.a@miraeeasset.com

3분기 글로벌 증시 전망, 강한 박스로 전망 + 글로벌 유망 Theme에 집중 전략

미래에셋대우는 3분기 전체 글로벌 증시를 강한 박스로 전망한다. 무역 전쟁이 글로벌 증시의 상단을 제약하는 반면 밑에서는 금리 인하가 시장을 받치는 그림을 예상하며, 이에 인덱스나 마켓에 대한 투자 보다는 글로벌 유망 Theme에 집중하자는 전략을 제시한다. 글로벌 Theme 가운데 AI/클라우드/플랫폼, 커뮤니케이션/콘텐츠, 핀테크, 헬스케어/로보틱스, 컨슈머 등의 Theme와 그 핵심 종목군에 대해 여전히 긍정적인 뷰를 유지 중이다.

유망 Theme에 집중하는 차원에서 Facebook 등 4개 종목 신규 추천

글로벌 유망 Theme에 집중하자는 전략적 차원에

서 Facebook(FB US)과 Zscaler(ZS US), Global X Cloud Computing(CLOU US)과 Anritsu(6754 JP) 등 4개 종목을 GBK 추천 포트폴리오(중국 제외)에 신규 편입했다. Facebook(FB US)은 보안 이슈 등으로 이탈했던 유저들이 돌아오고 있는 점과 가상 화폐 Libra가 Facebook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정부 규제에 Libra 출범까지는 부침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디지털 페이먼트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며 Libra 출범은 Facebook이 단순한 SNS업체가 아닌 금융사로 탈바꿈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또한 클라우드 시장의 폭발적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Global X Cloud Computing(CLOU US)과 Zscaler(ZS US)를 신규 편입했다. Zscaler(ZS US)는 클라우드 보안 관련 기업으로 CLOU ETF의 편입 종목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Anritsu(6754 JP)는 통신 장비 제조업체로, 통신 규격이 5G로 바뀔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어 신

규 편입하기로 했다.

미국과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에서는 필수재나 내수주 선호

중국이 미국과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에서는 필수재나 내수주를 상대적으로 선호한다. 귀주모태주(600519)와 해천미업(603288)을 비롯한 필수 소비재의 대표 종목, 상해국제공항(600009)과 중국평안보험(601318) 등의 내수 서비스 대표 종목이 실적 발표에서 지속적으로 실적 고 성장이 확인된 만큼 장기적 투자 관점은 유효하다. 다만 지난 2분기 동안 핵심 내수주의 주가가 시장 대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 상대적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진 만큼 주가의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 변동성을 활용한 트레이딩 전략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자동차 업황 부진이 장

기화하고 있고, 정부의 적극적 소비 촉진책이 부재하다. 따라서 상해자동차(600104)와 낙양몰리브덴(603393), 중국거석(600176) 등 자동차 섹터 관련 종목을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한다.

홍기체인(002697)도 내수주 선호 차원에서 신규 추천

홍기체인(002697)을 중국 포트폴리오에 신규 편입했다. 중국 증시에서 내수주를 선호하는 기본 콘셉트를 반영한 것이다. 홍기체인은 중국 편의점 시장 3위 기업으로, 빠른 도시화 등으로 중국의 편의점 시장이 고속 성장하고 있는 데 비해 편의점 기업으로는 유일한 상장사라는 점이 매력적이다. ■



* 자료: 미래에셋대우, 2019년 8월 12일 종가 기준

분류	지수명/종목명	티커	상장 국가	시가총액 (10억 달러)	종가 (P, 현지 통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MSFT	미국	1,037	135.79
	아마존닷컴(Amazon)	AMZN	미국	883	1,784.92
	알파벳(Alphabet)	GOOGL	미국	815	1,174.50
	알리바바(Alibaba)	BABA	미국	415	159.31
	비자(Visa)	V	미국	350	176.16
	시스코 시스템즈(Cisco Systems)	CSCO	미국	221	51.54
	넷플릭스(Netflix)	NFLX	미국	136	310.83
	나이키(Nike)	NKE	미국	128	81.55
	페이팔(PayPal)	PYPL	미국	121	102.72
	엔비디아(NVIDIA)	NVDA	미국	92	151.45
	에스티로더(Estee Lauder)	EL	미국	64	177.43
	인튜이티브 서지컬(Intuitive Surgical)	ISRG	미국	59	509.88
중국	귀주모태주(Kweichow Moutai)	600519	중국	181	1,018.63
	항서제약(Jiangsu Hengrui Medicine)	600276	중국	42	67.25
	상해국제공항(Shanghai International Airport)	600009	중국	22	81.37
	중국평안보험(Ping An Insurance)	601318	중국	213	86.5
	메이디그룹(Midea Group)	000333	중국	49	51.25
	톨리브레드(Toly Bread)	603866	중국	4	46.13
	오파인홈(Oppein Home Group)	603833	중국	6	97.63
	중신증권(CITIC Securities)	600030	중국	33	21.34
	해천미업(Foshan Haitian Flavouring & Food Company)	603288	중국	38	98.02
	홍기체인(Chengdu Hongqi Chain)	002697	중국	1	6.55
	텐센트(Tencent)	00700	홍콩	410	340
일본	소니(Sony)	6758	일본	71	5,973
	무라타(Murata)	6981	일본	29	4,578
	야스카와전기(Yaskawa)	6506	일본	8	3,290
	안리쓰(Anritsu)	6754	일본	3	1,965
베트남	마산그룹(MSN)	MSN	베트남	4	87,200.00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투자자산신탁1호(주식)

● **투자 위험 등급** : 고위험(3등급) ● **환매 방법** : 제4(5)영업일 기준으로 제 8(9)영업일에 대금 지급()17시 경과 후] ● **선취 판매 수수료** - 종류A : 1.0% 이내 ● **환매 수수료** - 없음 ● **총보수** - 종류A : 연 1.61%(운용 연 0.70%, 판매 연 0.8%, 신탁 연 0.06%, 사무수탁 연 0.03%, 기타비용 연 0.02%) ● **상품 특징 및 추천 근거** : 글로벌 기업들 가운데 장기 성장 메가트 렌드(소비자 구매력 증가, 기술 발전, 고령화 등)로부터 수혜가 예상되는 기 업들을 선별해 투자

미래에셋스마트헤지펀드셀렉션혼합자산투자자산신탁
(사모투자재간접형)

● **투자 위험 등급** : 초고위험(1등급) ● **환매 방법** : 매월 10~24일 이전 환매 청구 시 : 당일 24일(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로부터 제14영업 일(매월 24일 17시 경과 후 환매 청구 시 제1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 가격 을 적용하여 제20영업일(매월 24일 17시 경과 후 환매 청구 시 제21영업일) 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 대금을 지급 2. 매월 25일~익월 9일 이전 환매 청구 시 : 익월 9일(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로부터 제14 영업일 (익월 9일 17 시 경과 후 환매 청구 시 제1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 가격을 적용하여 제20영업일(익월 9일 17시 경과 후 환매 청구 시 제21영업 일)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 대금을 지급 ● **선취 판매 수수료** - 종류 A : 1.0% 이내 ● **환매 수수료** - 1년 미만 환매 시 : 환매 금액의 1.0%, 1년 경과 후 환매 시 : 없음 ● **합성총보수** - 종류A : 연 2.26%(운용 연 0.4%, 판 매 연 0.5%, 신탁 연 0.03%, 사무수탁 연 0.02%) ● **총보수** 외 피투자집합 투자기구 보수(연 1.31% 추정) 등 추가 비용 발생 ● **상품 특징 및 추천 근거** : 다양한 전략의 국내외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하여 장기적 자본 차익 추구

슈로더글로벌타겟리턴증권투자자산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투자 위험 등급** : 고위험(2등급) ● **환매 방법** : 제4(5)영업일 기준으로 제 8(9)영업일에 대금 지급()17시 경과 후] ● **선취 판매 수수료** - 종류A : 1.0% 이내 ● **환매 수수료** - 없음 ● **총보수** - 종류A : 연 1.36%(운용 연 0.70%, 판매 연 0.60%, 신탁 연 0.04%, 사무수탁 연 0.02%) ● **총보수** 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타 비용 등 추가 발생 가능 ● **상품 특징 및 추천 근거** : 밸류에이션에 기반한 자산 배분을 바탕으로 꾸준한 수익 추구

미래에셋스마트알파증권투자자산신탁(채권혼합)

● **투자 위험 등급** : 중위험(4등급) ● **환매 방법** : 제3(4)영업일 기준으로 제 4(5)영업일에 대금 지급()17시 경과 후] ● **선취 판매 수수료** - 종류A : 0.2% 이내 ● **환매 수수료** - 없음 ● **총보수** - 종류A : 연 0.55%(운용 연 0.20%, 판매 연 0.30%, 신탁 연 0.025%, 사무수탁 연 0.015%, 기타 비용 연 0.01%) ● **상품 특징 및 추천 근거** : 안정적 채권 이자 수익을 추구하는 동 시에 검증된 페어트리딩 전략을 활용하여 추가적 알파 수익 추구

홍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투자자산신탁(채권혼합)

● **투자 위험 등급** : 저위험(5등급) ● **환매 방법** : 제3(4)영업일 기준으로 제 4(5)영업일에 대금 지급()17시 경과 후 ● **선취 판매 수수료** - 종류A : 0.3% 이내 ● **환매 수수료** - 없음 ● **합성총보수** - 종류A : 연 1.3015%(운용 연 0.35%, 판매 연 0.90%, 신탁 연 0.023%, 사무수탁 연 0.017%, 기타 비용 연 0.004%) ● **합성 총보수**, 비용 비율은 투자신탁(클래스펀드)에서 지출되 는 보수와 기타 비용에 투자신탁(클래스펀드)이 통합 펀드(실제 운용되는 펀 드)에 투자한 비용을 안분한 통합신탁의 보수와 기타 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 자산 연평 잔액으로 나누어 산출 ● **상품 특징 및 추천 근거** : 채권 투자로 안 정적 수익을 추구하고 공모주 및 Event Driven 투자로 추가 수익 추구

신한BNPPH20글로벌본드증권투자자산신탁(USD)
(채권혼합-파생간접형)

● **투자 위험 등급** : 고위험(3등급) ● **환매 방법** : 제6(7)영업일 기준으로 제 8(9)영업일에 대금 지급()17시 경과 후 ● **선취 판매 수수료** - 종류A : 1.0% 이내 ● **환매 수수료** - 없음 ● **합성총보수** (피투자펀드 예상 총보수 비용 0.7% 포함) - 종류A : 연 1.435%(운용 연 0.40%, 판매 연 0.30%, 신탁 연 0.020%, 사무수탁 연 0.015%) ● **총보수** 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타 비 용 등 추가 발생 가능 ● **상품 특징 및 추천 근거** : 글로벌 매크로 전략에 기반 하여 다양한 채권 자산군과 통화에 투자하여 알파 수익 추구

블랙록다이나믹하이인컴증권투자자산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투자 위험 등급** : 고위험(3등급) ● **환매 방법** : 제4(5)영업일 기준으로 제 8(9)영업일에 대금 지급()17시 경과 후] ● **선취 판매 수수료** - 종류A : 1.0%이내 ● **환매 수수료** - 없음 ● **합성총보수** (피투자펀드 예상 총보수 비용 0.4% 포함) - 종류A : 연 1.683%(운용 연 0.50%, 판매 연 0.70%, 신탁 연 0.040%, 사무수탁 연 0.025%) ● **총보수** 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타 비 용 등 추가 발생 가능 ● **상품 특징 및 추천 근거** : 비전통 자산군을 포함한 다 양한 글로벌 자산 및 투자 전략을 활용하여 인컴 수익 및 장기적 자본 차익 추구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투자자산신탁1호(채권)

● **투자 위험 등급** : 저위험(5등급) ● **환매 방법** : 제3(4)영업일 기준으로 제 7(7)영업일에 대금 지급()17시 경과 후] ● **선취 판매 수수료** - 종류A : 0.3% 이내 ● **환매 수수료** - 없음 ● **총보수** - 종류 A : 연 0.69%(운용 연 0.30%, 판매 연 0.3%, 신탁 연 0.04%, 사무수탁 연 0.02%, 기타 비용 연 0.03%) ● **상품 특징 및 추천 근거** : 13년의 운용레코드를 가진 글로벌 채 권 펀드로 시장전망에 따른 국가/섹터간 자산배분을 통해 낮은 변동성으로 운용



Compliance Note

- 모델 포트폴리오에는 매월 당사가 자산배분위원회에서 대내외 투자 환경 등을 고려하여 수립합니다.
- 추천 상품은 시장 적합성과 상품성 등에 대해 정량적·정성적 분석을 통하여 투자 매력도가 높은 금융 상품을 선정합니다.
 - 선정 기준 : 정량평가(기간 수익률, 표준편차 등), 정성평가(집합투자업자 운용 능력, 시장 상황, 자원 현황 등)
 - 선정 방법 : 자산배분위원회 개최를 통해 선정
 - 추천 상품은 정량 및 정성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미래에셋 내 투자 전문가들이 선정한, 향후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품입니다.

투자자 유의 사항 (공통)

- 당사는 금융 투자 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 투자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 금융 투자 상품은 투자 결과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외화 자산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 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국내주식 거래 수수료는 0.014%~0.49%(매체별 상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해외주식 거래 수수료는 온라인 0.25%~0.45%, 오프라인 0.5%~1%(국가별 거래 수수료 상이함,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펀드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 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 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재간접형 펀드의 경우 해당 펀드가 투자하는 피투자 펀드의 보수, 수수료,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수·수수료 외에 증권 거래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 가입기간 : 최소 5년이상
- 납입한도 : 연 1,800만원
- 연금수령조건 : 가입기간 5년 이상 만 55세 이후, 매년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 가능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분리과세) 등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LS(ELB)/ DLS(DLB)

- 파생결합증권/사채는 공모 결과 총 청약 금액이 모집 금액의 100% 이상인 경우 청약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정합니다.
- 파생결합증권은 기초 자산의 변동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 상환 시에도 공정 가액에서 헤지 자산 청산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므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파생결합사채는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 상환 시 공정 가액에서 헤지 자산 청산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므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파생결합증권/사채는 발행사(AA, 2019. 06. 25, 한국기업평가(주))의 신용 위험(부도 또는 파산 등)에 따른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행사의 투자 적격 등급은 AAA/AA·A·BBB 각각 +, O, - 순으로 구분합니다.
- 이 안내문은 청약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청약의 권유는 (예비·간이)투자설명서에 따릅니다.
- 원금 부분 지급이나 원금 지급 상품의 경우 중도 상환 시 최대 손실률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국내/해외 채권

- 당사는 당사 발행 외의 채권(또는 CP)에 대해 중도 환매 및 원리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중도 매매 시 시장 금리 등에 따라 원금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채권은 발행사 및 발행 국가의 신용 위험(부도 또는 파산 등)에 따른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이일드 채권은 투자 원금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안내문은 청약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청약의 권유는 (예비·간이)투자설명서에 따릅니다.

당신을 위한 글로벌 팀플레이!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주식거래

11개국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강력한 리서치,
전문가의 컨설팅, 유망종목 선별 리포트까지-
미래에셋대우의 글로벌 인프라를 함께 누리십시오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인프라

- 11개국 글로벌 네트워크 & 글로벌 리서치센터
- 24시간 계좌개설·해외투자 전용 주문데스크 운영
- 전문가가 운영하는 1:1 맞춤형 글로벌랩 서비스

[미래에셋대우 고객센터 1588-6800] ■당사는 이 금융투자상품 및 서비스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 및 서비스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등 외화자산은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거래시 수수료는 온라인 0.25~0.45%, 오프라인 0.50~1.00%(국가별 거래수수료 상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캡어카운트 서비스의 수수료는 홈페이지 및 영업점을 통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캡어카운트의 위탁매매수수료는 없으나, 금융투자상품 매매시 해당 상품의 약관, 설명서 등에서 정한 보수, 수수료 등의 비용은 고객님의 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BetaShares
Exchange Traded Funds

★ 호주, 총자산 5조 원, 총 53개 ETF



HORIZONS
EXCHANGE TRADED FUNDS

★ 캐나다, 총자산 9조 원, 총 97개 ETF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TIGERETF

★ 한국, 총자산 11조 원, 총 121개 ETF

GLOBAL X

★ 미국, 총자산 10조 원, 총 67개 ETF

글로벌 자산배분은 미래에셋 ETF로!

미래에셋은 한국, 미국, 홍콩, 캐나다 등 8개국에 걸쳐 글로벌 ETF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 'TIGER ETF'를 비롯해 캐나다 'Horizons', 호주 'BetaShares', 미국 ETF 운용사 'Global X'를 인수하여
ETF 자산운용 규모는 세계 10위권으로 올라섰습니다. (기준일 : 2019년 2월 28일)

미래에셋의 글로벌 투자역량과 선진 ETF 운용 기법을 통해 글로벌 우량 ETF를 제공할 것입니다.

[판매사]

글로벌 투자 파트너 -

MIRAE ASSET
미래에셋대우

[운용사]

원칙을 지키는 투자 -

MIRAE ASSET
미래에셋자산운용

■ 집합투자증권은 운영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수수료 및 환매 방법 등에 관하여(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수·수수료 외에 증권거래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